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측정과 정책 평가 연구결과 공유회

장 소

2016년 6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주 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자료집 순서

프로그램	2
------------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 측정과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3
---	---

[연구진]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홍 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75
------------------------	----

[연구진] 조달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로그램

1부	개 회	15:00-15:10	- 개회사: 김수현(서울연구원 원장) - 환영사: 이은애(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축 사: 강선섭(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과장)
	좌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15:10-15:50	- 발표: 경제사상적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의미 (홍훈 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장점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홍기빈(칼폴라니연구소 연구위원장), 김형미(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휴식		15:50-16:00	
2부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정책 과제	16:00-17:30	- 발표: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주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김태환 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측정 및 관련 지표 개발(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
			- 발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유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장종익 교수)
			- 발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조달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문철우(성균관대 교수), 김정열(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의장)
청중토론		17:30-17:50	
폐회		17:50-18:00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 측정과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성과 측정과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진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홍 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차례

- I 경제사상적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의미
- II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장점
- III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주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IV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측정지표 개발
- V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및 향후 방향

I. 경제사상적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의미

- 1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
- 2 정체성과 자긍심
- 3 내적인 동기
- 4 관계, 상호성, 신뢰
- 5 역량의 배양, 유지, 강화
- 6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1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

- 사회적 경제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 스미스와 밀을 배경으로 삼고, 오웬을 통해 본격화되었다가, 20세기에는 폴라니가 다시 이것을 복원시켰다. 20세기 말 이후 행동경제학이 사회적 선호, 상호성, 공정성 등 근거를 제공함(Monzón & Chaves, 2012; Fehr & Schmidt, 1999; Fehr & Gächter, 2000; Smith, 1998, 2010).
-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폴라니가 『대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경제의 배태성(embeddedness)을 내세움, 사회나 자연에 의존하는 노동, 토지, 화폐와 윤리나 규범의 제약을 받는 경제활동을 주창. 『인간의 생계』 *The Livelihood of Man* (1977)에서는 경제학의 형식논리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생계를 지향하는 실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합리성을 내세움.

1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

- 역사적으로 기원후부터 1천년까지 인류경제는 정체상태에 있다가 1천년 이후부터, 특히, 1820년 이후,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룸(Maddison, 2001). 1929년의 대공황은 이런 대세에 충격을 가함. 대공황은 케인스J. M. Keynes라는 경제학자를 낳음. 양자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케인스주의적인 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가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세계를 지배함. 시장이 미시적인 경제를, 정부나 국가가 거시경제를 담당.
- 70년대 중반부터 재정위기 등으로 케인즈주의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부상. 사회적 경제는 적극적인 사회적 수요의 충족과 노동통합labor integration을 위한 정책을 요구함(Borzaga & Defourny, 2001). 사회적 경제는 케인즈주의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chefold, 2015)와 달리 민간부문에 의존함.

1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

- 사회적 기업은 90년대 초 이후 EMES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발전함(Defourny & Nyssens, 2010). 그것의 기업적인 특징은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속적인 생산, 높은 수준의 자율성, 상당 정도의 경제적 위험, 최소한의 유급노동임, 그것의 '사회적인' 특징은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명시적인 목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자본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결정권한, 해당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 이윤분배에 대한 제한 등임(Defourny & Nyssens, p. 49).
- 한국사회는 1987년에 거시차원에서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경쟁의 논리에 압도됨. 그 결과 미시단위에서 경쟁을 앞세운 비민주성, 권위주의, 불평등, 비효율성 등이 누적됨. 사회적 경제가 미시단위에서 최소한의 효율성과 함께 자율성, 상호성, 연대 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1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

- 사회적 기업을 위시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상호성과 연대로 알려짐. 상호성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요구하며, 연대는 시민정신과 참여를 전제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굳건한 자아를 필요로 함.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정체성, 내적인 동기, 관계와 신뢰, 역량배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 정체성과 자긍심

- 시장경제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낙오한 사람들의 자활이나 자력갱생을 위한 정체성identity의 회복이 필요함. 정체성은 활동과 행위의 동기와 근거이고 자긍심이나 존엄성, 자신감의 기반임(Rawls, 1971). 정체성은 개인적으로 성실, 정직, 친절로, 사회적으로는 인종, 종교, 성별, 직업, 계층, 계급, 규범으로 규정. 학교나 생산조직의 내부인이 되도록 정체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임금의 인상이나 유인체계의 변화 없이도 노력증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됨(Akerlof & Dickens, 1982; Akerlof & Kranton, 2005, 2010; Bénabou & Tirole, 2011).
- 사회경제적으로 낙오된 사람은 낙인이 찍히기 쉽다. 사회적 낙인은 이로 인해 특정 사회, 장, 집단에서의 배제될 위험성으로 규정할 수 있음(Crocker & Major, 1989; Crocker, Major & Steele, 1997). 낙인이 찍힌 사람은 정체성과 자긍심, 사회성을 상실하거나 이에 있어 손상을 입게 됨. 이로 인해 낙인은 자아의 결핍, 자신감의 상실,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낳음.

2 정체성과 자긍심

- 사회적 기업은 지역공동체의 돌봄 서비스와 함께 노동통합을 두 가지 목표로 제시함(Borzaga & Defourny, 2001). 청소년, 명퇴자, 낙오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장종익, 2014, 250쪽). 수동적인 소득보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의 장소가 필요함.
- 동양인이나 한국인은 개인적 자아외에 관계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를 지닌다(Markus & Kitayama, 1991; Brewer & Gardner, 1996; Gelfand et al., 1996; 유정식 외, 2012). 타인과의 관계나 소속한 집단에 의존해 자신의 자아나 자긍심을 유지함. 이것은 관계적인 정체성이나 집단적인 정체성임.

3 내적인 동기

- 경제학은 화폐소득이나 점수 등 외적인 유인만 강조. 내적인 동기도 중요. 외적인 유인이 내적인 동기를 구축해 의욕이나 생산성을 감퇴시킴(Iyengar & Lepper, 1999; Ryan & Deci, 2000; Bénabou & Tirole, 2003; 프라이 2008). 자선행위이나 헌혈에 금전을 제공하면, 자선행위나 헌혈이 감소한다.
- 내적 동기는 활동자체가 목표인 행동과. 외적인 동기의 구분은 활동의 결과가 목표인 생산과 각기 연결됨(아리스토텔레스). 활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명감이나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헌신이 내적인 동기를 구성함(모차르트와 이순신). 의사-환자구완, 교사-학생교육, 연구-지식탐구, 법관-정의구현, 목민관-민원봉사, 군인-나라수호 등이 그런 예임.

3 내적인 동기

- 사명감을 지닌 주체는 시장의 기업보다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친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학교, 관료, 공기업 등에 부합됨(Besley & Ghatak, 2005, pp. 625-630). 집단과의 일체성이나 정체성을 강화하면 내적인 동기가 증가함. 조직 내에서는 자율성의 보장이나 권한의 이양으로 정체성, 소속감, 내적인 동기를 모두 증진됨(Baker et al., 1999).
- 내적인 동기는 관찰가능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계약보다 묵시적인 계약 implicit contract에 부합됨. 묵시적인 계약은 장기적인 목표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인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가능함. 내적인 동기는 묵시적이거나 관계적인 계약과 장기적인 관계에서 형성됨(Murdock, 2002; Baker et al., 1999).

4 관계, 상호성, 신뢰

- 사회적 경제는 인간들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와 상호성, 그리고 신뢰를 지향함. 경제학은 분석과 행위의 단위를 개인으로 삼아 관계나 집단을 경시하지만 인간 관계가 인간에게 중요하고 심지어 근원적이다(Ryan & Deci, 2000).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모스나 폴라니의 선물교환관계. 독일식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장기적인 거래관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등이 이에 부합됨(Bourdieu, 1986; Coleman, 1988; 홍훈, 2006a, 2006b).
- 동양사회의 관계적인 성격이 이를 강화시킴(Hofstede & Bond, 1988; Triandis, 1989). 농업에 근거한 소규모 가족경제에서 상호인간관계가 중요했음(Sugihara, 2003). 인간관계의 경제학의 의미(Zamagni, 2005; Sacco, Vanin & Zamagni, 2006; Gui, 2000; Stiglitz, Sen & Fitoussi, 2009). 지연/혈연/학연이라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나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은 이와 직접 연결됨.

4 관계, 상호성, 신뢰

- 경제학은 개체주의를 표방해 시장이 공급하는 사적인 재화를 강조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로 간주함. 사회적 경제는 관계를 중시하고 이것은 시장과 정부사이에 존재하므로 사적인 재화와 공공재 사이에 관계재나 집단재를 강조함(Uhlaner, 1989; Ostrom, 1990).
- 인간관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관계재는 유형적인 재화보다 무형적인 서비스와 주로 연결. 관계가 활동이나 행위를 통해 생기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관계재는 소비든 생산이든 활동에서 비롯됨. 관계재가 활동에서 나오거나 활동자체이므로 절차, 과정, 참여, 그리고 내적인 동기를 중시하게 됨.

5 역량의 배양, 유지, 강화

- 사회적 경제는 역량capability을 육성. 역량은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기능function을 통해 좋은 삶과 행복으로 이어짐(Sen, 1987; Nussbaum, 2003).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업의 기술혁신은 내적인 유인과 함께 역량강화와 밀접한 연관됨. 역량은 시민. 참여, 자아실현을 포괄함. 역량은 소비와 생산을 관통함. 선생의 교육역량과 학생의 학습역량. 기업조직 내부에 있으며 생산현장에서 습득되고 유지되는 생산역량. 이런 역량이 사회관계에 의존하면, 사회자본이 됨. 또한 역량은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규정됨.
-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은 교과서에 나오는 추상적이고 명시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경험을 통해 '현장'field에서 체득한 구체적이고 암묵적인tacit 지식임(Polanyi, 1958). 전자는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이고 후자는 이런 개념에 의존하든 안 하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knowhow임. 장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암묵적인 지식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은 상당부분 집단적임(Nonaka, 1998). 생산역량은 기업조직수준에서 설정됨.

6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청소년과 명퇴자 등 실업자는 빈곤하면서 자긍심이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 활동이나 참여의 기회를 잃어 자신의 역량이 손상. 소득보전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자신의 역량을 유지·개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력단절이나 역량유지여부는 육아와 연관. 육아는 사회적 품질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시장이 아니라 관계형 상호부조나 선물교환이 적절. 육아서비스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관계제도 형성함. 육아협동조합이나 육아친화적인 마을이 필요.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이와 유사.

6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생계형 자영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 협동조합이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상호성을 진작하는데 기여. 협동조합이 국부적인 신뢰 particular trust로부터 일반적인 신뢰generalized trust로 나가는데 공헌(Stolle, 1998). 영세기업이나 프리랜서의 협동조합도 비슷한 역할.
- 장애인, 이주여성, 노숙인, 기초수급자 등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최소한의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자선이나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의 소속감을 회복시키고, 활동의 기반을 제공해 자립이나 자활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

6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한국의 교육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유정식외, 2012). 학벌사회의 입시경쟁에서 낙오한 청소년이나 부모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함. 이를 위한 부조는 효율성과 사회정의에 부합되고 역량육성에 기여.
- 환경은 외부효과가 높아 시장을 통해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생산조직을 통해 조달할 필요.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재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의 환경관련 활동은 시민의식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육성.

II.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장점

1. 이론적 검토
2.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효과성 특성
3. 관계형 사회서비스 영역의 상대적 효과성 분석
4.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효과성 분석

1.1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 (1)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목적에의 집중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미션을 추구한다는 사업 목적상의 특성으로 인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Hansmann 1987)
- (2) 민주적 지배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비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임직원들의 충성도 강화, 생산성 향상, 사업 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같은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Borzaga, Depedri & Galera 2012)
- (3) 이용자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소비자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 가능(Pestoff 2009a; Pestoff 2009b)
- (4) 지역사회에 신뢰에 기반한 외부 자원의 유입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업목적상의 차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방성으로 인해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외부 자원동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다양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음(Borzaga, Depedri & Tortia 2010)
- (5)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쉬운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
 - 이용자나 소비자들이 발언(voice)과 이탈(exit) 등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비해 유연성 및 혁신 압력이 더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충성도가 결합됨으로써 혁신 의지 및 능력도 더 큼(Borzaga & Galera 2012)

1.2 사회적경제조직이 유리한 영역들

- 사회적경제조직은 집합재, 가치재, 관계재의 성격을 띠거나 정의 외부효과가 크고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이 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서 경쟁우위를 발휘
 - **집합재(collective goods)**란 소비나 생산의 외부성이 커서 다수의 조직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통해서만 의도하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고 비배제성이 커서 일단 생산이 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Olson & Zechkauser 1967)
 - **가치재(merit goods)**란 보편적 유용성이 높아 개인들이 욕구를 숨기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비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공급도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아니라 필요에 기초해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Musgrave 1987)
 - **관계재(relational goods)**란 특정한 개별 주체 단독으로는 소비되거나 생산될 수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동 행동 또는 소비자들의 공동 행동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재화나 서비스. 소비를 통해 누리는 편익이 서비스 제공자와 맺는 관계의 내용이나 밀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화들도 여기에 포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촉면이 큰 상담, 보육, 간병과 같은 돌봄 서비스는 의도성과 호혜성과 의도성이 특히 중요(Uhlener 1989; Bruni & Stanca 2008)
 - 재화의 소비가 직접적인 이용자 뿐 아니라 가족, 친척, 이웃, 사회구성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의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큰 재화
 -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을 사전에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자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이 큰 재화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경쟁우위를 지님

2.1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미션 공유 정도

- 구성원 간 미션의 공유 정도는 5점 만점에 3.9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 주요 미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지역만들기(4.11),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4.10), 노동통합(4.03), 좋은 일자리 창출(3.83)의 순서
- 미션 공유 정도가 높을수록 성과도 높다는 가설이 타당하다면, 행복한 지역만들기나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미션이 다른 미션들에 비해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 가능
- 조직 유형별로는 마을기업(4.23), 인증사회적기업(4.15), 협동조합(3.82)의 순서
- 마을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보다도 구성원들의 미션 공유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등 기초 작업에 충실했음을 시사

[표] 조직 미션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정도

		합계		5점평 균
		N	%	
주요미션	전체	204	100	3.96
	좋은 일자리 창출	100	100	3.83
	노동통합	36	100	4.03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30	100	4.10
	행복한 지역만들기	38	100	4.11
조직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65	100	4.15
	협동조합	127	100	3.82
	마을기업	31	100	4.23

2.2 사회적경제조직체 형태를 선택한 이유

-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로 설립을 한 이유와 관련, 해당 업체 추구 미션을 영리나 공공기관 형태로 달성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한 곳(18.6%)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가 영리나 공공기관에 비해 해당 미션의 달성에 상대적으로 유효해서라고 대답한 곳(80.9%)이 훨씬 많았음
 - 사회적경제조직이 영리나 공공기관과 대체관계보다는 보완 및 경쟁관계에 있음을 시사
- 유형별 주요 특징
 - 영리나 공공기관이 해당 미션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서라는 대답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36.7%), 행복한 지역만들기(18.4%), 노동통합(16.7%), 좋은 일자리 창출(14.0%) 미션 순서
 - 영리나 공공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표적인 미션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 주요 업종과 관련해서는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영리나 공공기관의 역할 부재에 주목한 응답자들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높았음
 - 교육 서비스업 43개 응답업체 중 10곳(23.3%)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개 응답업체 중 5곳(31.3%)이 기존 경제조직이 미션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 설립했다고 응답

[표] 사회적경제 형태로 설립을 한 이유

	사례 수	조직 미션을 달성하는 영리나 공공기관이 없어서			영리나 공공기관에 비해 미션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N	N	%	N	%
주요 미션	전체	204	38	18.6	165	80.9
	좋은 일자리 창출	100	14	14.0	85	85.0
	노동통합	36	6	16.7	30	83.3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30	11	36.7	19	63.3
	행복한 지역만들기	38	7	18.4	31	81.6
조직 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65	19	29.2	46	70.8
	협동조합	127	18	14.2	108	85.0
	마을기업	31	3	9.7	28	90.3

2.3 상대적 효과성 여부

-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곳과 아니라고 응답한 곳이 각각 103곳과 101곳으로 비슷한 수준
 - 응답기관 중 절반 이상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짧은 역사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고무적 성과
 - 주요 미션별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주요 미션이라고 응답한 곳이 더 긍정적으로 자기평가. 앞서 제시했던 미션의 공유와 사업 경쟁력 확보 사이의 선순환 고리가 작동했을 가능성 시사
 - 조직유형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53.8%)과 마을기업(54.8%)이 협동조합(46.5%)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다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비해 협동조합들 사이의 편차가 큰 결과일 가능성
 - 규모 면에서는 임직원 수가 늘어나거나 매출액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임직원 수나 매출액 양쪽 모두 최대 규모 이전 수준인 5-9명(66.7%)과 5억원-10억원(65.2%)의 낙관적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영리기업/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상대적 우위에 있는지 여부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N	%	N	%
전 체	204	103	50.5	101	49.5
주요 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100	49.0	51	51.0
	노동통합	36	47.2	19	52.8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30	53.3	14	46.7
	행복한 지역만들기	38	55.3	17	44.7
조직 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65	53.8	30	46.2
	협동조합	127	46.5	68	53.5
	마을기업	31	54.8	14	45.2
유급 임직원 수	없음	52	36.5	33	63.5
	1~4명	74	48.6	38	51.4
	5~9명	33	66.7	11	33.3
	10명 이상	45	57.8	19	42.2
2015년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72	44.4	40	55.6
	1억원~5억원 미만	56	53.6	26	46.4
	5억원~10억원 미만	23	65.2	8	34.8
	10억원 이상	33	54.5	15	45.5
	모름/무응답	20	40.0	12	60.0

2.4 상대적 효과성의 형태

-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도 더 저렴하고 품질도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은 비싸지만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성격의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준다”고 응답한 업체가 37.9%로 그 다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13.6%
 - 주요 미션별 분석
 -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들을 주요 미션별로 보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62.5%), 노동통합(58.8%), 행복한 지역만들기(42.9%), 좋은 일자리 창출(38.8%)의 순서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미션으로 한 기관들이 가장 인상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업종별 분석
 - 가격 및 품질 양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많이 응답한 업종 유형들 순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7%), 건설업(66.7%), 교육서비스업(58.8%), 제조업(46.2%)
 - 가격과 품질 양 측면에서 우위를 자부하는 업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에 집중

[표] 주요 미션 별 상대적 우위의 형태

	사례 수	가격 우위		품질 우위		가격·품질 동시 우위		가격·품질 열위이나 여타 가치우위	
		N	%	N	%	N	%	N	%
전 체	103	14	13.6	1	1.0	48	46.6	39	37.9
주요 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49	20.4	1	2.0	19	38.8	18	36.7
	노동통합	17	2	11.8	0	10	58.8	5	29.4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16	0	0	0	10	62.5	6	37.5
	행복한 지역만들기	21	2	9.5	0	9	42.9	10	47.6

2.5 주요 미션별 상대적 우위의 원천

- 영리 및 공공부문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은 이들 요인들을 대체로 고르게 선택

- 혁신친화형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 등이 상대적 우위로 많이 거론
- 영리 및 공공부문보다 효과적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의 경우, 내부자의 내재적 동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구조, 외부의 신뢰에 기반한 보다 많은 자원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

주요 미션별 분석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사업체, 혁신친화형 지배구조(26.5%),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22.4%),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20.4%) 등 순서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사업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31.3%),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목적예의 집중(18.8%),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18.8%),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18.8%) 순서. 민주적 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더 강조
- 영리 및 공공부문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 중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주요 미션으로 제시한 사업체들은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자원봉사나 기부 등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33.3%)과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23.8%) 강조

[표] 주요미션별 상대적 우위의 원천

	사 례 수	이윤분배 제한으로 인한 사회 적 목적 집 중		민주적 구 조와 내재 적 동기부 여로 인 한 높은 생산성		이용자의 참 여 유도 사업 모델		지역사회 신 뢰 기반한 외부자원의 유입		혁신 친화 형 지배구 조		
		N	%	N	%	N	%	N	%	N	%	
전 체												
	103	15	14.6	23	22.3	18	17.5	23	22.3	24	23.3	
주 요 미 션	좋은 일자리 창출	49	7	14.3	11	22.4	10	20.4	8	16.3	13	26.5
	노동 통합	17	2	11.8	5	29.4	0	.0	6	35.3	4	23.5
	양질의 사회서비 스 제공	16	3	18.8	5	31.3	3	18.8	2	12.5	3	18.8
	행복한 지역 만들기	21	3	14.3	2	9.5	5	23.8	7	33.3	4	19.0

2.6 조직유형, 규모 및 업종별 분석

조직유형별 분석

-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40.0%),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자원봉사나 기부 등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25.7%),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17.1%) 순서. 변화 및 혁신능력을 강조한 반면, 이용자의 참여 유도나 이윤분배 제한 등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경시
- 협동조합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요인(23.7%)과 이용자 참여 유도 사업모델 요인(22.0%)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강조한 응답기관이 많았음

조직규모별 특징

- 규모가 커질수록 혁신능력이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

업종별 특징

- 교육 및 서비스업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요인(35.3%),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23.5%),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 요인(23.5%) 순서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목적예의 집중(33.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요인(33.3%) 강조

[표] 조직 유형 및 규모별 상대적 우위의 원천

		사 례 수	이윤분배 제한으로 인한 사회 적 목적 집 중			민주적 구 조와 내재 적 동기부 여로 인한 높은 생 성			이용자의 참여 유도 사업모델			지역사회 신뢰 기반 외부자 원의 유입			혁신 친화 형 지배구 조			
		N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103	15	14.6	23	22.3	18	17.5	23	22.3	24	23.3						
조직 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35	3	8.6	6	17.1	3	8.6	9	25.7	14	40.0						
	협동조합	59	12	20.3	14	23.7	13	22.0	10	16.9	10	16.9						
	마을기업	17	1	5.9	3	17.6	4	23.5	7	41.2	2	11.8						
없음		19	5	26.3	3	15.8	1	5.3	5	26.3	5	26.3						
유급 플타임 임직원	1~4명	36	3	8.3	7	19.4	12	33.3	8	22.2	6	16.7						
	5~9명	22	4	18.2	8	36.4	3	13.6	3	13.6	4	18.2						
	10명 이상	28	3	11.5	5	19.2	2	7.7	7	26.9	9	34.6						
1억원 미만		32	7	21.9	6	18.8	8	25.0	6	18.8	5	15.6						
1억원~5억원 미만		30	5	16.7	8	26.7	5	16.7	7	23.3	5	16.7						
매출액 규모	5억원~10억원 미만	15	1	6.7	3	20.0	1	6.7	4	26.7	6	40.0						
	10억원 이상	18	1	5.6	5	27.8	4	22.2	3	16.7	5	27.8						
	모름/무응답	8	1	12.5	1	12.5	0	.0	3	37.5	3	37.5						

2.7 상대적 열위 형태

- 204개 응답기관들 중 101개 기관이 사업상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
 - 주요 미션의 경우에는 노동통합(52.8%) 및 좋은 일자리 창출(51.0%)에서, 조직유형의 경우에는 협동조합(53.5%)에서, 규모 면에서는 저규모 사업체에서 사업상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사업상 상대적 열위에 놓인 사업체들의 경우 가격 열위가 가장 큰 애로 요인(84.2%)임을 확인

[표] 주요 미션별 상대적 열위의 형태

	사례수	가격 열위		품질 열위		가격-품질 동시 열위	
		N	%	N	%	N	%
전 체	101	64	63.4	13	12.9	21	20.8
좋은 일자리 창출	51	34	66.7	5	9.8	11	21.6
노동통합	19	9	47.4	5	26.3	4	21.1
주요미션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14	9	64.3	1	7.1	4	28.6
행복한 지역만들기	17	12	70.6	2	11.8	2	11.8

2.8 상대적 열위의 원천

-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다고 응답한 101개 사업체들 중에는 제품·서비스의 지나치게 적은 생산규모로 인한 높은 원가구조를 상대적 열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거론한 곳이 가장 많았음(37.6%)
 - 다음으로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직원들의 노동의욕 위축과 낮은 생산성(22.8%),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나 부당 거래(19.8%), 사회적 목적의 과도한 강조와 이윤동기 제한(14.9%)의 순서.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기반 및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생산규모 증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확보 등이 중요한 정책과 제임을 시사
 - 반면 이윤동기 제한이나 사회적 목적의 강조를 경쟁열위의 원인으로 거론한 사업체들은 많지 않았음. 이들 사회적 목적의 강조 및 이윤동기 제한은 경쟁우위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거론 빈도가 많지 않았음. 경쟁우위의 문제는 목적이나 사명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환경이나 경영전략 등에 더 좌우됨을 시사

[표] 주요미션 상대적 열위의 원천

	사례수	사회적 목적 과도한 강조와 이윤동기 제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저생산 규모로 인한 고 원가구조		과당경쟁 및 부당거래	
		N	%	N	%	N	%	N	%
전 체	101	15	14.9	23	22.8	38	37.6	20	19.8
좋은 일자리 창출	51	5	9.8	8	15.7	22	43.1	13	25.5
노동통합	19	1	5.3	6	31.6	7	36.8	3	15.8
주요미션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14	3	21.4	4	28.6	6	42.9	1	7.1
행복한 지역만들기	17	6	35.3	5	29.4	3	17.6	3	17.6

2.8 미션별 상대적 열위 분석

• 미션별 경쟁열위 특성

- 좋은 일자리 창출 미션 설정 사업체들은 저생산규모로 인한 고원가구조(43.1%)와 과당경쟁 및 부당거래(25.5%)를 열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 노동통합 주요 미션 설정한 사업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31.6%)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
- 사회적 목적의 과도한 강조와 이윤동기 제한을 경쟁열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한 응답 유형도 있었는데,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21.4%)과 행복한 지역만들기(35.3%)를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사업체들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행복한 지역만들기 미션 설정 사업체는 사회적 목적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미션 설정 기관들은 저생산규모로 인한 고원가구조를 주요 원인(42.9%)으로 거론한 곳들이 다수.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 확대가 가장 중요한 선택과제임을 시사
- 행복한 지역만들기 미션 설정 기관들은 사회적 목적의 과도한 강조와 이윤동기 제한을 주요 원인(35.3%)으로 거론한 곳들이 다수. 사회적 목적의 추구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조화가 향후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

[표] 주요미션 상대적 열위의 원천

	사 례 수	사회적 목적 과도한 강조 와 이윤동기 제한		열악한근 로조건으 로 인한낮 은생산성		저생산규모 모로 인한 고원가구조		과당경쟁 및 부당거래		
		N	%	N	%	N	%	N	%	
전 체	101	15	14.9	23	22.8	38	37.6	20	19.8	
주요 미션	좋은일자리 창출	51	5	9.8	8	15.7	22	43.1	13	25.5
	노동통합	19	1	5.3	6	31.6	7	36.8	3	15.8
	양질의 사회 서비스제공	14	3	21.4	4	28.6	6	42.9	1	7.1
	행복한 지역 만들기	17	6	35.3	5	29.4	3	17.6	3	17.6

2.9 조직유형별, 업종별 상대적 열위 분석

• 조직유형별 상대적 열위 특성

- 조직유형별로 상대적 열위의 원천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요인들을 보면 세 유형 모두 저생산규모로 인한 고원가구조를 거론

• 업종별 상대적 열위 특성

- 상대적 열위의 원천으로 저생산 규모로 인한 고원가구조 요인을 가장 많이 거론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5%), 운수업(61.5%), 제조업(53.3%) 등이 대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업종임을 시사
-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이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훨씬 많이 거론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함을 시사

3.1 관계형 사회서비스 영역에 주목하는 이유

(1)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문가 인식도 조사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회적경제 섹터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설문조사
 - 실업 및 양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미션을 통해, 경제적 배제층 증가 문제는 노동통합 일자리 창출 미션을 통해, 노인 및 육아 문제는 양질의 관계형 사회서비스 제공 미션을 통해, 낙후지역의 주거복지, 환경 및 재생에너지, 청소년 교육, 마을 해체 문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상정
- 양질의 관계형 사회서비스 제공 미션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여타 전문가 집단 모두 전략의 효과성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
 - 반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통합 미션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를 부여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미션은 기타 전문가들로부터는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부터는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음
- 따라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전략에 가장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는 노인돌봄 및 아동 보육 관련 필요

3.1 관계형 사회서비스 영역에 주목하는 이유

(2) 사회서비스 영역의 높은 고용 창출 능력

-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도 확대
-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밟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OECD 평균이 74.6%, 한국은 69.3%),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가족기능과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문과 문화·여가 등 개인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부문들이 고용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에 의거, 2012년 기준 사회서비스 고용규모는 294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9%로 추산
 -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은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으로 100만 7천 명(5.4%)
 -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문은 '돌봄서비스업'으로 98만(5.3%)로 추정
 - 국내 돌봄서비스업의 이용자는 크게 산모·신생아, 아동, 노인, 병원 입원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
 - 이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보육서비스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 요양·간병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큼

3.2 돌봄서비스의 품질 및 고용의 질

(1) 아동보육 서비스의 품질과 고용의 질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
 - 이용기관 관련: 아동학대와 방임, 부실한 급·간식, 불안한 위생상태, 특별활동비·난방비 등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 제도 관련: 보조금 허위 청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부족, 수요 대비 어린이집 부족, 이용자 선택권의 제약
- 고용의 질도 대단히 열악
 - 열악한 고용의 질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
- 급여 수준
 - 월 평균 급여는 131만원 수준. 임금은 원장 재량으로 결정. 경력에 상응하지 않는 호봉체계.
- 근무조건
 - 하루 평균 노동시간 9시간 30분, 시간제 일자리 확대, 불안정한 고용관계
 - 전국어린이집의 평균 보육교사 수 4.2명 중 절반인 2.1명이 이직이나 퇴직을 선택(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평균 근무경력은 총4년5개월에 불과(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젊은 여성의 일자리에서 40대 기혼 여성들의 일자리로 변화 중

3.2 돌봄서비스의 품질 및 고용의 질

(2) 요양 및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고용의 질

-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
 - 요양서비스: 환자에 대한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돌봄, 보호자와의 형식적이고 방어적인 상담, 위생 및 안전관리 소홀,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중점,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잦은 병원 통원 부담 등
 - 간병서비스: 높은 경제적 부담, 원하는 간병인의 고용 어려움, 불성실한 간병서비스, 수준 낮은 간병(29.8%),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지식 부재, 간병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4.5%) 등
- 고용의 질
 - 노인돌봄시장은 결혼·출산·양육의 공백기 이후 갑작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50대 이상 중고령 여성의 대표적인 일자리. 그러나 생계 목적의 대안이 되기에는 저임금, 불안정한 급여, 거센 노동강도로 특징지어지는 최악의 나쁜 일자리
- 급여 수준
 - 월평균 임금은 88만원 수준. 상용직은 105원, 임시직·일용직은 77만원 수준(2010년 기준).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120만원 내외. 기본급 없는 시급제 방식의 임금제도. 일체의 수당이 없으며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책정으로 인한 편법과 불법 사례. 법정복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심야수당을 보장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명절상여금 등 비법정 기업복지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음
- 근무 조건
 - 기간제고용과 단시간 고용이 결합된 형태(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노동강도가 아주 거세고 각종 위험에 노출. 근골격계 질환. 재가요양보호사들은 고립적으로 활동해도 다른 위험에도 노출 이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청소·식당종업원을 병행하는 여성이 다수 존재.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좋은 일자리란?
 - 입직구의 엄격한 관리, 고용안정, 정년보장, 체계적인 복지혜택과 승급·승진 보장, 자기주도성.

3.3 돌봄서비스 영역 상대적 효과성 설문조사 분석

(1) 돌봄서비스는 영리, 공공기관 등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가장 큰 영역

- 사회적경제 형태로 설립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해 당해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는 영리나 공공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기관들의 주요 미션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36.7%), 행복한 지역만들기(18.4%), 노동통합(16.7%), 좋은 일자리 창출(14.0%)의 순서
 - 이는 영리나 공공 등 기존 경제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현장에서 인식하는 대표적인 미션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임을 의미
- 주요 업종과 관련해서는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전통적인 영리나 공공기관의 역할 부재에 주목한 응답층들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높았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6개 응답업체 중 5곳(31.3%)이,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43개 응답업체 중 10곳(23.3%)이 기존 경제조직이 미션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 설립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
 - 이는 양질의 관계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과 관련해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쟁우위의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3.3 돌봄서비스 영역 상대적 효과성 설문조사 분석

(2)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서비스는 가격 및 품질 양쪽에서 경쟁우위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 204곳 중 103곳이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우위에 있다고 응답. 이들 중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사업상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들을 주요 미션별로 보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62.5%), 노동통합(58.8%), 행복한 지역만들기(42.9%), 좋은 일자리 창출(38.8%)의 순서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미션으로 한 기관들이 가장 인상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사업체 30개 기관들 중 16개 기관이 영리나 공공부문을 상대로 사업상 우위에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 16개 기관들 중 10곳은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응답. 나머지 6개 기관들의 경우에는 가격이나 품질에서 열위에 있기는 하지만 영리나 공공부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성격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
- 업종별로 보더라도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 영리나 공공부문에 비해 가격 및 품질 양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많이 응답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7%), 건설업(66.7%), 교육서비스업(58.8%), 제조업(46.2%)
 - 특히 가격과 품질 양 측면에서 우위를 자부하는 업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3.3 돌봄서비스 영역 상대적 효과성 설문조사 분석

(3)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우위의 원천

- 영리 및 공공부문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 중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사업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31.3%),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목적에의 집중(18.8%),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18.8%),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18.8%),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자원봉사나 기부 등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12.5%)의 순서로 경쟁우위의 원천을 찾았음
 - 이들 사업체의 경우에는 민주적 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여타 유형에 비해 더 강조
- 돌봄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특징이 발견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목적에의 집중(33.3%)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요인(33.3%)이 강조
 - **교육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높은 생산성 요인(35.3%)이 가장 많이 강조되었고,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자원봉사나 기부 등 외부자원의 추가적 유입 요인(23.5%)과 혁신 친화형 지배구조 요인(23.5%)이 그 다음 순서

4.1 심층 인터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이 영리나 공공기관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정말로 거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경쟁우위를 가능케 한 원천들은 무엇인지, 소유 및 지배구조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체들 사이에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대적 우위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돌봄서비스현장의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2) 조사 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명, 직원 3명, 이용자 1명, 보호자 4명)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산하 꿈꾸는집 요양원(원장 대행 1명, 직원 1명, 보호자 1명)
 - 민간 영리부문의 별가람요양원(원장 1명)
-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위탁 운영 중인 마포구립 성미어린이집(원장 1명, 교사 1명, 부모 1명)
 - 부모협동어린이집 개구리어린이집(원장 1명, 교사 1명, 부모 1명)
 - 부모협동어린이집인 작은나무숲어린이집(원장 1명, 교사 1명, 부모 1명)

(3) 조사방식 및 일정

- 조사방식
 - 사전에 질문지 이메일로 전달 후, 현장 방문해 면대면 인터뷰 진행
- 일정
 -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2016년 3월 7일 ~ 18일
 -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2016년 3월 11일 ~ 18일

4.2 아이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1) 고용의 질

- 모두가 사회적경제 방식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이라고 확신한다고 응답
- 모든 응답자가 좋은 일자리 구성요소들 중 존중감을 최우선 요소로 선택. 직장 내 인간관계, 직업적 보람 등이 상위 요소로, 복리후생, 고용안정, 급여 등이 하위 요소로 선택
- 학부모들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영리나 국공립에 비해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응답

(2) 서비스 만족도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사회적경제 방식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대안이라고 응답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는 모든 응답자들이 보육서비스의 충실성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 투명성과 개방성,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와 공동유대 순서
- 학부모들도 모두 사회적경제 방식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대안이라고 응답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의 우선순위로 모두 보육서비스의 충실성, 투명성과 개방성,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와 공동유대 순으로 응답

(3) 비교우위 및 그 원천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영리나 국공립 방식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
- 비교우위 요인들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쉬운 혁신친화형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 부여로 인한 직원들의 높은 생산성 등이 높은 지지를 받았음
 - 앞서 검토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내재적 동기 부여로 인한 직원들의 높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이 특히 강조되었다는 차별성이 있음

4.3 아이돌봄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대적 선호도

- 공동육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품앗이 돌봄공동체,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방식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직형태가 협동조합 방식의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응답
 - 협동조합 방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출자금 및 조합비 부담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공동육아 시설의 임대료 지원이나 유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
 - 부모협동어린이집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공동육아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부모들은 현재 이용 중인 방식을 선호
 - 구립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공동육아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했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협동어린이집 형식을 선호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방식이 가장 좋다고 응답
 - 이러한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4.4 노인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1) 고용의 질

-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에 가장 유리한 조직형태라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
 -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이 사업체 경영의 투명성인데, 일반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직원이 경영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그러나 협동조합은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조합원이 경영에도 참여 가능
 - 정부와의 능동적 협력관계 형성에도 협동조합이 유리. 좋은 일자리는 제도 및 정책과도 관련성이 깊으며, 정부와의 협상도 큰 몫을 차지.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을 벌여 나갈 수 없는 존재이며, 다른 극단에 있는 개인 영리법인은 정부 개입을 체질적으로 반대. 반면,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 개선과 이용자에게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조직 형태

4.4 노인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집 요양원의 경우 고용의 질이 양호하다고 응답
 - 경영 공개, 노동자 대표가 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직원의 경영 참여 보장,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근로부담 절감, 근골격계 질환 치료비 요양원 부담, 5년 근속자에 대한 안식월 제공 등을 통해 낮은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데 성공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도 고용의 질 개선
 - 시립중랑요양원은 과거 종교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인 도우누리가 위탁 인수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에 커다란 변화 발생. 도우누리의 시립요양원 인수 이후 소속을 바꿔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급여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높고, 복리후생도 잘 되어 있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응답.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도 계속 올라가고 근무편성표도 괜찮음. 주 업무도 경관영양 돕거나 복약 돕기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기본 수발 중심으로 편성
 -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말단 직원들이 중간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실장이나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등 근무 분위기도 개선

4.4 노인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2) 서비스 만족도

- 시립중랑요양원 이용자나 보호자들의 경우 시설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 하드웨어나 시설이 넓고 쾌적하며 나들이 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좋은 편. 시립북부병원이 옆에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해 좋다는 것.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나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리 방식에 비해 만족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음
- 안산의료사회협 꿈꾸는집 요양원 직원의 경우, 이용자의 존엄을 지켜주고 개인적인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보호자에게는 면회 장소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응답
- 이용자, 보호자, 임직원 모두에게 요양서비스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
 -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의 인간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
 -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성의 있게 케어를 받는 게 훨씬 중요. 현실적으로는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

4.4 노인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 요양서비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인간적 관계가 관건임을 시사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 과제의 해결을 모색. 처우 개선이 임직원의 충성도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 이를 위해 외부자원을 투입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방식도 변경하고 의무적인 직무도 줄이는 등 경쟁업체에 비해 우월한 근무환경 제공
- 도우누리 이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가 서비스의 질을 정말로 개선했는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토로. 직원들도 처우 개선이 생산성 향상 및 이용자 친화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으로 연결되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고 응답
- 관료주의나 무임승차자 문제 등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존함을 시사
 - 안산의료사회협 임원에 따르면, 의료사회협 조합원이 요양원 직원일 때는 이용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문화가 있었으나, 이후 비조합원 직원이 일반화되면서 헌신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응답. 협동조합 본연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관건일 수 있음을 시사

4.4 노인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대적 우위

(3) 비교우위의 내용

- 영리나 공공부문 방식의 대표적 사업체들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
 - 도우누리 및 안산의료사회협회의 임직원들은 이윤추구 동기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양질의 근로조건 및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 이 점은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 특징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응답
 - 사람에 대한 투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임직원의 주인의식 제고 강조. 충성도는 확실히 제고. 생산성 향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좋은 일자리 제공이 일차적 목적인 셈. 가치와 이익 중 가치를 훨씬 더 중시
- 시립중랑요양원, 안산 꿈꾸는집 요양원 직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으로 인한 외부자원의 높은 동원 능력,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풍부한 운영이 큰 장점
 - 시립중랑요양원 직원들의 경우 민주적 지배구조의 경쟁력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4.5 협동조합 방식 선호 및 향후 방향

- 요양원을 이용자/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든다고 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사회적경제 방식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
 - 보호자들과 직원들은 협동조합 방식의 요양원 참여에 긍정적으로 응답
 - 개인 영리시설 운영자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고 유보
 - 직원들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대등한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이들을 데리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려웠기 때문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경제논리로만 보자면, 돌봄제공 조직을 운영하는데 협동조합 방식은 비효율적. 민주적 의사결정에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관계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과 관련해 협동조합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이고,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영리법인보다 우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 시립중랑요양원의 사례처럼 시립이나 구립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을 더욱 늘리고, 이들 요양원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 더욱 늘어나는 게 바람직
- 여기에 더해 꿈꾸는집 요양원처럼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희망자들을 모아 직접 경영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

III.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주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주변 지역 주민의 행복도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를 증진시키는 지의 여부 (spill-over effect)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함
-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 well-being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
 -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공동체의 후생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 응집력 (social cohesion & social integration)에 관심이 높음
 -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로 형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positive spill-over effect)를 가질 수 있음

- 사회과학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결과 개개인이 느끼는 '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의 가장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로 알려져 있음; Kahneman and Krueger (2006)
 - 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 아젠다에 편입되면서 절정기에 들어섬; Bruni and Porta (2007)
 - subjective well-being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서베이질문을 통해서 측정됨;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최근 몇 년간 당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 대표적 기존문헌: Sarracino, F. and Gosset, A. (2015), Assessing the Non-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Luxembourg, working paper.

(1) 종속변수: 행복도

- 연구에 사용된 행복도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지표는 2014년 10월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주민 45,4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서베이'에 있는 행복도변수에서 추출되었음
- 더욱 구체적으로는 서울서베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수집: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요즘 귀하의 행복 정도를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 따라서 이 변수는 0에서 100사이의 자유값을 가지는 연속변수임
- 45,496명의 응답을 분석할 결과 행복도의 평균값은 72.7

순위	구	평균행복도	순위	구	평균행복도
1	강동구	77.61	13	종로구	72.29
2	강남구	77.52	14	용산구	71.82
3	서초구	76.66	15	광진구	71.67
4	마포구	76.31	16	성북구	71.5
5	동작구	75.13	17	강서구	71.12
6	중랑구	74.43	18	노원구	70.87
7	서대문구	74.3	19	도봉구	70.55
8	구로구	74.27	20	은평구	70.55
9	성동구	73.43	21	강북구	70.54
10	송파구	73.3	22	중구	70.3
11	영등포구	72.75	23	동대문구	69.81
12	양천구	72.38	24	관악구	69.78
			25	금천구	64.9

(2) 핵심 설명변수: 2014년의 사회적기업의 비중

- 핵심 설명변수인 '사회적경제섹터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는 (i) 이익/자본이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에 더 관심을 부여하고, (ii) 경영에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거나, 민주적 경영방식에 대한 존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사회적경제섹터의 일원이라고 간주됨
- 하지만, 이러한 기준자체도 명확한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경제섹터의 모든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본 연구에서는 핵심 설명변수인 2014년의 '사회적경제섹터의 크기'를 (i) 사회적협동조합, (ii) 인증사회적기업, (iii) 마을기업, 그리고 (iv)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여, 각 행정구별 '사회적경제섹터의 크기'를 측정하였음.

구	사회적협동조합 수	인증사회적기업 수	마을기업 수	운영중인 협동조합 수	구별 총계
마포구	4	19	11	44	78
영등포구	12	24	4	20	60
중로구	3	16	4	28	51
중구	3	15	3	27	48
강남구	5	13	6	24	48
서초구	7	11	5	20	43
구로구	2	11	10	18	41
성북구	6	15	11	5	37
서대문구	3	4	7	22	36
송파구	1	4	5	26	36
은평구	1	13	5	15	34
금천구	5	9	6	12	32
광진구	4	8	3	16	31
동산구	0	10	10	8	28
성동구	1	10	5	10	26
동작구	2	7	7	10	26
종로구	0	4	4	16	24
강서구	1	5	4	14	24
도봉구	4	4	6	8	22
관악구	1	9	4	8	22
노원구	3	5	2	11	21
강동구	2	1	7	8	18
강북구	2	3	5	7	17
중랑구	1	3	3	8	15
양천구	0	4	2	4	10
총계	73	227	139	389	828

단순회귀분석

- 먼저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핵심 변수들 (행복지수, 사회적경제섹터의 크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회귀분석 모형을 고려함.

$$y(i) = a + b \cdot S(i) + e(i)$$

- 위의 모형에서 $y(i)$ 는 i 번째 응답자의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S(i)$ 는 i 번째 응답자가 소속된 행정구의 사회적경제섹터의 크기를 나타냄.

변수명	계수추정치	t-값
상수항	70.868	560.606
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크기	0.057	16.714

인과관계?

-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증가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행복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 하는가”라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인과관계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
-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행복도는 해당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나이, 교육수준, 직업의 수준, 결혼여부 등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
- 따라서 해당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할 때,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인들도 함께 변화한다면, 관찰되는 행복도의 증가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증가로 인한 행복도의 증가분과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의한 행복도의 증가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위의 단순회귀식에서, 혹은 그것의 추정치인 0.057에 이러한 혼합효과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증가가 행복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한 모든 요인들이 해당주민들에게 완벽히 동일한 가상적 상황을 만든 후에 사회적경제조직 1개의 증가시켰을 때 행복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지를 관찰하는 것임
-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가상적 상황을 생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프리쉬-와우 정리 (Frisch-Waugh theorem)에 의하면 아래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증가가 행복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y(i) = a + b \cdot S(i) + c \cdot X(i) + e(i)$$

- 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X(i)$ 는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 통제변수벡터임
- 따라서, 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크기인 변수의 계수인 b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증가가 행복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측정하는 계수가 됨.

통제변수들?

- 월소득 수준
- 연령수준
- 남녀 성별차이
- 학력수준
- 직업의 종류에 따른 차이
- 서울의 지역에 따른 차이
- 혼인상태
- 구 별 거주자 수
- 구 별 기업 수

월소득분포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100만원미만	996	0.0219
100-200만원	2720	0.0598
200-300만원	5445	0.1197
300-400만원	10710	0.2354
400-500만원	11411	0.2508
500만원이상	14214	0.3124
총계	45496	1

연령분포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10대	3304	0.0726
20대	6159	0.1354
30대	9553	0.2100
40대	10072	0.2214
50대	8642	0.1900
60대이상	7766	0.1707
총계	45496	1

성별분포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남성	21671	0.4763
여성	23825	0.5237
총계	45496	1

학력분포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초등학교 졸업	1396	0.0307
중학교 졸업	3948	0.0868
고등학교 졸업	15970	0.3510
대학 재학/졸업	10546	0.2318
대학교 재학/졸업	13127	0.2885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509	0.0112
총계	45496	1

직업분표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관리자	1463	0.03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39	0.0382
사무 종사자	10068	0.2213
서비스 종사자	5288	0.1162
판매 종사자	5940	0.13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6	0.00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33	0.040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86	0.0195
단순 노무 종사자	1311	0.0288
학생	5597	0.1230
주부	8751	0.1923
무직	2511	0.0552
기타	53	0.0012
총계	45496	1

대지역분포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도심권	3483	0.0766
동북권	14382	0.3161
서북권	5637	0.1239
서남권	13601	0.2989
동남권	8393	0.1845
총계	45496	1

혼인상태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기혼	31223	0.6863
미혼	10764	0.2366
이혼/별거	1318	0.0290
사별	2191	0.0482
총계	45496	1

구별 특성변수들

- 거주자 수는 2014년 기준 각 구별 등록된 거주자 수를 말함
 - 회귀분석에서는 (거주자 수/10000)이 설명변수로 사용됨
- 기업 수는 2014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기업의 수를 말함
 - 회귀분석에서는 (기업 수/10000)이 설명변수로 사용됨
- 범죄율자료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공데이터에서 입수함
 -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에 등록된 5대 범죄 (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력) 발생 건수를 이용했음.

구	거주자 수 (단위: 명)	기업 수 (단위: 개)	범죄율 (단위: 10만명당 발생건수)
종로구	157774	39326	3182.4
중구	128786	64846	4061.8
용산구	236775	20067	1604.5
성동구	297151	24803	1205.4
광진구	364625	24676	1719
동대문구	363467	31972	1200.4
중랑구	419422	27490	1276.3
성북구	469033	25074	982
강북구	335798	19248	1200.1
도봉구	354815	17713	880.5
노원구	584809	25173	908.3
은평구	499610	23953	1087
서대문구	311761	19211	1345.3
마포구	381995	32793	1502.6
양천구	486867	25720	953.4
강서구	583460	32021	906.5
구로구	426824	35352	1262.6
금천구	238956	28406	1607.8
영등포구	383479	42151	1826.2
동작구	408805	20035	946.4
관악구	514333	26309	1318.4
서초구	449550	42882	1236.3
강남구	575196	62614	1538.8
송파구	666592	43503	1200.7
강동구	478026	29756	1128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도

소득수준더미 (기준: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1.644	2.802
	200-300만원	3.750	6.648
	300-400만원	5.197	9.261
	400-500만원	5.817	10.329
	500만원이상	7.033	12.453

연령수준에 따른 행복도

연령수준더미 (기준: 10대)	20대	-0.238	-0.705
	30대	-0.949	-2.320
	40대	-2.703	-6.479
	50대	-2.982	-7.087
	60대이상	-3.295	-7.653

성별/가족수에 따른 행복도

성별더미 (기준: 여성)	남성	-0.555	-4.299
가족 수		-0.259	-3.853

학력에 따른 행복도

학력수준더미 (기준: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1.527	3.430
	고등학교졸업	2.494	5.736
	대학 재학, 졸업	3.161	6.960
	대학교 재학, 졸업	3.399	7.443
	대학원 재학, 수료, 졸업	4.875	6.957

직업에 따른 행복도

직업더미 (기준: 무직)	관리자	5.001	11.35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733	11.044
	사무 종사자	3.760	10.673
	서비스 종사자	2.344	6.512
	판매 종사자	2.555	7.2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915	0.59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09	4.8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164	4.292
	단순노무 종사자	-0.883	-1.874
	학생	4.117	9.392
	주부	2.820	8.146
	기타	4.031	2.674

지역대분류에 따른 행복도

지역대분류더미 (기준: 도심권)	동북권	-0.204	-0.577
	서북권	0.424	1.112
	서남권	0.281	0.755
	동남권	3.292	7.524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도

혼인상태더미 (기준: 미혼)	기혼	1.488	6.857
	이혼/별거	-3.209	-7.295
	사별	-1.679	-4.322

구별특성변수

구별 거주자 수/10000		-0.040	-4.805
구별 기업 수/10000		0.116	1.981
범죄율		-0.001	-5.406

사회적경제와 행복도

	변수명	계수추정치	t-값
	상수항	64.862	64.767
	구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크기 (β)	0.033	6.243

실증분석결과의 해석

- 소득수준, 연령수준, 남녀차이, 학력수준, 직업차이, 지역차이, 혼인상태의 차이, 구별 거주자수, 구별 기업의 수 등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의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짐
- 더욱 구체적으로는 고려된 모든 통제변수들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한 개 증가하면 주민의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033증가함.

사회적조직의 화폐적가치

- 소득과 행복도의 관계
 - '100만원미만'에서 '100-200만원'으로 증가할 때 행복도의 증가분은 1.644
 -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증가할 때 행복도 증가분은 2.106
 - '200-3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 증가할 때 행복도 증가분은 1.447
 - '300-40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증가할 때 행복도 증가분은 0.620
 - '400-5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으로 증가할 때 행복도 증가분은 1.216
- 따라서, 100만원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적인 행복도증가분은 위의 수치들의 평균값인 1.4066이라고 볼 수 있음.

- 반면, 해당 구에 사회적경제조직 1개가 증가하면 행복도의 증가분은 0.033이기에, 사회적경제조직이 10개 증가한다면 행복도는 0.33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0.33의 행복도 증가분의 화폐가치는 $100 * 0.33 / 1.4066 = 23.4$ 만원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해당 구의 모든 주민들의 소득이 23.4만원씩 증가했을 경우의 행복도 증가분(0.33)과 동일

- 구의 평균주민수가 약 40만 명이므로 행복도 0.33의 화폐가치는 $40만 명 * 23.4만원 = 약 936억 원$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해당 구의 사회적경제조직 10개가 증가하는 것의 화폐적 가치는 약 936억 원이라고 볼 수 있음

사회적조직과 영리추구조직

- 앞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해당 구의 기업수가 10,000개 증가하면 주민들의 행복도가 0.116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경제조직 1개가 증가하는 경우 행복도가 0.033증가하기에, 만약 사회적경제조직 3.515개가 증가하면 행복도가 0.116점 증가
-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을 4개 증가하는 것과 일반 영리기업을 10,000개 증가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인과관계(causality) vs 상관관계(correlation)?

- 상관관계의 관점: 낮은 밀도
- 인과관계의 관점: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지배구조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있는 개방형인 경우도 많음
 -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의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자체가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면이 증대될 것임
- 이러한 접촉면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임.

가설의 설정

- 인과관계라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크기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주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주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미하게 클 것
- 단순상관관계라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크기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주민의 행복도'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주민의 행복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임

가설검정모형

$$y(i) = a + b(1)*S(i) + b(2)*D(i)*S(i) + c*X(i) + e(i)$$

$$D(i) = 0 \quad (\text{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알지 못함})$$

$$= 1 \quad (\text{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알고 있음})$$

- 알지 못하는 집단의 영향계수: $b(1)$
- 알고 있는 집단의 영향계수: $b(1)+b(2)$

- <서울서베이>는 사회적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설정’,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서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 위의 정의를 제시한 후 <서울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
 - “귀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택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 있다. 4. 전혀 모른다.

	해당구간의 응답자 수	비중
매우 잘 알고 있다	886	0.019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874	0.2610
들어본 적 있다	14562	0.3201
전혀 모른다	18174	0.3995
총계	45496	1

- 만약 번째 응답자가 위의 질문에 대해서 1, 2, 또는 3을 선택하면 1의 값을 가지는 반면 만약 동일한 번째 응답자가 4를 선택하면 0의 값을 가짐
- 즉,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인식도까지 포괄적으로 인식도의 범위를 넓게 포착함
- B(2)계수의 추정치가 0.0213이고 t-값이 7.147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짐.

- 만약 번째 응답자가 위의 질문에 대해서 1(매우 잘 알고 있다), 2(어느 정도 알고 있다)를 선택하면 1의 값을 가지는 반면 만약 동일한 번째 응답자가 3(들어본 적 있다), 4(전혀 모른다)를 선택하면 0의 값을 가짐
- 즉,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인식도는 인식하지 못하는 범주로 포함
- 따라서 더미변수 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식별하게 됨
- b(2)의 추정치가 0.0415이고 t-값이 13.37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짐

VI.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측정지표 개발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 기본 설계
2. 설문조사 개요
3.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 실태
4. 유형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5. 유형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 결정요인과 애로요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 기본 설계

- 동일 영역 혹은 유형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간의 비교가 가능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 및 실증 문헌 분석, 전문가 여론조사, 유형별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FGI 등을 통하여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항목을 마련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측정 여부, 개발된 성과 측정지표(안)에 대한 선호도, 이 지표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주관적으로 성과에 대한 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위의 설문조사결과를 계량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총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로 성과 측정지표 항목(안)과 비교 가능한 종합성과지표(안)을 제시함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15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 240개, 2014년 12월 말까지 설립된 협동조합 중 2015년 6월 말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 487개 협동조합, 2015년 9월 말 현재 165개 마을기업 등 총 892개 대표 혹은 실무책임자
- **응답자 특성** : 204개 사회적경제조직 중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및 조합원 소득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응답자가 100명, 노동통합형이 36명,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30명,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응답자가 38명임. 응답 사회적경제조직 중 인증 사회적기업이 65개, 협동조합 128개, 마을기업 31개

설문조사 개요

조직의 부차적 미션(복수응답)

		사례수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유지		노동통합		양질의 사회서 비스 제공		지역사회 만들기		없음	
		N	N	%	N	%	N	%	N	%	N	%
[전 체]		204	43	21.1	57	27.9	36	17.6	51	25	74	36.3
조직의 주요미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100	0	0	37	37	16	16	33	33	48	48
	노동통합	36	21	58.3	0	0	14	38.9	7	19.4	4	11.1
	양질의 사회서 비스 제공	30	7	23.3	10	33.3	0	0	11	36.7	7	23.3
	지역사회 만들 기	38	15	39.5	10	26.3	6	15.8	0	0	15	39.5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 실태

조직 미션에 대한 성과 측정지표 설정 여부

		사례수	지표를 사용하여 측 정하고 있다		성과 측정 지 표 개발 중이다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		합계	
		N	N	%	N	%	N	%	N	%
[전 체]		204	52	25.5	79	38.7	73	35.8	204	100
[조직의 주요미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100	22	22	45	45	33	33	100	100
	노동통합	36	14	38.9	11	30.6	11	30.6	36	100
	양질의 사회서 비스 제공	30	6	20	10	33.3	14	46.7	30	100
	더불어 사는 행 복한	38	10	26.3	13	34.2	15	39.5	38	100
	지역사회 만들 기	38	10	26.3	13	34.2	15	39.5	38	100
[조직유형(중복)]	인증 사회적기업	65	22	33.8	24	36.9	19	29.2	65	100
	협동조합	127	24	18.9	53	41.7	50	39.4	127	100
	마을기업	31	8	25.8	11	35.5	12	38.7	31	100
기타		1	0	0	0	0	1	100	1	100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 실태

- 성과측정 지표사용 및 지표 개발 중일 확률에 대한 영향분석: (Logit, 관찰치=139)

	변수명	계수추정치	t-값
	상수항	53.892980	0.59
	설립연도	-0.026652	-0.59
	풀타임직원수	-0.017695	-1.69
	2015년 총 매출액	0.000001	0.46
	'15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매출액	-0.000001	-0.2
	'15년 지출총액에서 외부지원금의 비중	0.018118	1.8
	2015년 당기순이익	0.000061	2.22
미션더미 (기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통합	-0.284309	-0.49
	양질의 사회서비스제공	-0.355693	-0.57
	행복한 지역사회	-0.362962	-0.69
미션공유더미 (기준: 어느정도 공유 + 매우 높으스주		0.334943	0.74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 성과 지표 항목

주요 영역	성과 지표
고용의 질에 관한 객관적 지표 영역	① 동종업계의 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
	② 고용안정
	③ 조합원의 소득 향상
고용의 질에 관한 취업자의 주관적 지표 영역	④ 근로자의 직업적 자부심(내 업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업무의 미션 기여도
	⑤ 기업민주주의 (내가 주인인 사업체,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며 성과를 나눔)
	⑥ 양질의 동료관계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서 얻는 보람)
고용의 질에 관한 사회적 기여 지표 영역	⑦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
	⑧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발적인 공헌을 장려하게 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 성과 지표의 종합순위

지표내용	득점	가중치	종합순위
1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	12.50	5.60	8
2. 고용안정	38.48	17.24	2
3. 조합원의 소득 향상	44.52	19.94	1
3. 근로자의 직업적 자부심/ 업무의 미션 기여도	28.77	12.89	4
4. 기업민주주의	31.55	14.13	3
5. 양질의 동료관계	28.55	12.79	5
7.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	22.75	10.19	6
8. 지역사회 관심/ 자발적 공헌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형성	16.11	7.22	7
소 계	223.23	100.00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 종합성과점수의 산출방식

- 동일 유형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 항목별로 수량적인 변수값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점수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표 항목별로 수량적인 변수값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까지는 진전시키지 않고 추후 연구로 넘기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해당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에게 지표 항목별로 1-100점까지의 자가평가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이 수치를 토대로 종합 점수를 시도하였음
- 종합성과점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임. 첫 번째 방법은 8개의 모든 지표에 대해서 위의 '성과지표들간의 최종순위'를 나타낸 가중치를 가지고 종합성과점수를 산출함.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목표 취약계층 분류

	저소득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청년, 한부모 가족,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학업중퇴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범죄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갱생보호 대상자, 노숙인, 약물/알콜/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외국인 근로자		합계	
	N	%	N	%	N	%	N	%	N	%
	21	58.3	4	11.1	9	25.0	2	5.6	36	100.0
인증 사회적기업	11	47.8	4	17.4	7	30.4	1	4.3	23	100.0
협동조합	10	76.9	0	.0	2	15.4	1	7.7	13	100.0
마을기업	2	66.7	0	.0	0	.0	1	33.3	3	100.0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항목)

주요 영역	성과 지표 항목
취약계층고용의 양적 지표 영역	① 정규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취약계층) 고용의 수
	② 전체 종업원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의 비중
취약계층고용의 질에 관한 지표 영역	③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고용된 취약계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의 지표
	④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고용된 취약계층의 급여 및 복지수준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가의 지표
	⑤ 취약계층의 자활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와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⑥ 고용된 취약계층의 기업에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주인역량 수준
노동통합 미션의 사회적 기여 지표 영역	⑦ 간접 효과(취약계층 가족의 안정, 공공재정의 순 감소 등에 기여하는 효과)
	⑧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발적인 공헌을 장려하게 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종합순위)

성과지표 항목	득점	가중치	종합순위
1. 정규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취약계층) 고용의 수	11.66	17.49	3
2. 전체 종업원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의 비중	14.78	22.18	1
3. 동종업계 대비 취약계층의 상대적인 고용안정 지표	12.73	19.09	2
4. 동종업계 대비 취약계층의 상대적인 급여 및 복지수준 지표	4.83	7.24	6
5.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지출규모 및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6.89	10.33	5
6. 고용된 취약계층의 기업 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주인역량 수준	7.45	11.18	4
7. 간접효과(취약계층 가족의 안정, 공공재정의 순감소 등에 기여효과)	4.18	6.27	7
8. 지역사회 관심/ 자발적 공헌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형성	4.15	6.23	8
소 계	66.67	100.00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 응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종사분야 (중복 허용)

	사 례 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거주 또는 비 거주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간병 등 개인 서비스		고용 알선, 등 사업 지원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N	N	%	N	%	N	%	N	%	N	%	N	%	N	%	N	%
	30	15	50.0	4	13.3	5	16.7	7	23.3	5	16.7	7	23.3	1	3.3	8	26.7
인증 사회적기업	12	5	41.7	1	8.3	2	16.7	3	25.0	2	16.7	3	25.0	1	8.3	4	33.3
협동조합	16	9	56.3	3	18.8	3	18.8	4	25.0	2	12.5	4	25.0	0	.0	3	18.8
마을기업	6	5	83.3	3	50.0	0	.0	0	.0	1	16.7	0	.0	0	.0	2	33.3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지표(항목)

주요 영역	성과 지표 항목
가격 경쟁력 지표 영역	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낮게 유지되는 가격수준
서비스의 질 관련 지표 영역	② 예방의료서비스, 충실한 간병서비스 등 서비스의 충실성
	③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용자의 불만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는 이용자 민감성
이해관계자 참여형 운영구조 관련 지표 영역	④ 이용자들이 자원봉사나 후원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거나 자체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벌이도록 유도하는 이용자 참여도
	⑤ 임직원의 급여, 복리, 고용안정, 교육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사자 친화성
사회적 기여 지표 영역	⑥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제공 등 탄력적인 가격체계
	⑦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극적 고용
	⑧ 지역민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에의 기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지표 (종합순위)

지표내용	득점	가중치	종합 순위
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낮게 유지되는 가격수준	5.86	10.45	6
2. 예방의료서비스, 충실한 간병서비스 등 서비스의 충실성	8.46	15.08	4
3. 이용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만을 최대한 신속 반영하는 이용자 민감성	8.82	15.71	3
4. 자원봉사, 후원, 자체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이용자 참여도	9.42	16.79	1
5. 임직원의 급여, 복리, 고용안정, 교육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사자 친화성	2.99	5.32	8
6.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무료제공 등 탄력적인 가격체계	9.25	16.49	2
7.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극적 고용	4.09	7.29	7
8. 지역민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에의 기여	7.23	12.88	5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 지표

-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분야 (중복 허용)

	사례수	낙후주택 유지보수, 취약계층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주택협동조합 등		마을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교류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		환경보전, 에너지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자금 등 지원서비스 제공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활동(교육)	
		N	%	N	%	N	%	N	%	N	%
	38	6	15.8	20	52.6	14	36.8	8	21.1	1	2.6
인증 사회적기업	12	3	25.0	6	50.0	2	16.7	5	41.7	1	8.3
협동조합	21	3	14.3	10	47.6	10	47.6	3	14.3	0	.0
마을기업	10	1	10.0	9	90.0	3	30.0	0	.0	0	.0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 지표

-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세부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분야 나 활동에 따라 성과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지표를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오픈된 질문형태로 설문항목을 만들었음
- 이에 대하여 응답 사회적경제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미션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성과지표 항목들을 열거
- 이 미션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통의 성과측정 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유지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애로 요인

애로 요인	득점	가중치	종합순위
1. 자본금 조달 부족	51.98	25.38	1
2. 경영전문성의 부족	25.07	12.24	5
3. 조합원의 주인 역할 및 협동의 미흡	28.12	13.73	4
4.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35.04	17.11	2
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미흡 혹은 약화	7.57	3.70	8
6. 사회적 지원제도 및 정책의 미흡	28.79	14.06	3
7. 사회적 지원의 조직화 역량 미흡	12.68	6.19	7
8. 고민공유, 도움제공 등 경영네트워크의 부족	15.03	7.34	6
9. 사업아이템 개발 부족 (개방형 질문에 대한 유일한 응답)	0.5	0.24	9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성과점수 설명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명	계수추정치	t-값
	상수항	48.57	4.19
	플타임직원수	0.52	2.17
미션공유더미 (기준: 낮은수준)	보통수준	8.03	0.98
	높은수준	21.40	2.91
더미	자본금 조달부족	-6.86	-1.14
더미	경영전문성 부족	1.25	0.19
더미	조합원의 주인역할 미흡	-12.18	-1.86
더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함	-6.19	-0.87
더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미흡	3.48	0.49
더미	사회적 지원제도 미흡	4.92	0.64
더미	사회적 지원의 조직화 역량 미흡	-14.95	-2.13
더미	경영네트워크의 부족	-2.54	-0.26

(‘종합성과점수2’를 종속변수로 사용함)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요인 종합순위

애로 요인	득점	가중치	종합순위
1.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지원 미흡	18.14	27.32	1
2. 매우 취약한 계층에 투하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지원 미흡	14.27	21.48	2
3. 고민공유, 도움제공 등 경영네트워크의 부족	4.33	6.51	6
4.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9.20	13.85	3
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미흡 혹은 약화	2.95	4.43	8
6. 자본금 조달 부족	8.44	12.71	4
7. 경영전문성의 부족	3.58	5.39	7
8. 조합원의 주인 역할 및 협동의 미흡	5.51	8.30	5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요인 종합순위

애로 요인	득점	가중치	최종순위
1. 자본금 조달 부족	16.88	31.25	1
2. 경영전문성의 부족	4.94	9.15	5
3. 조합원의 주인 역할 및 협동의 미흡	3.43	6.34	7
4.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8.42	15.58	3
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미흡 혹은 약화	1.67	3.09	8
6. 사회적 지원제도 및 정책의 미흡	8.71	16.13	2
7. 사회적 지원의 조직화 역량 미흡	5.38	9.95	4
8. 고민공유, 도움제공 등 경영네트워크의 부족	4.60	8.51	6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 지향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요인 종합순위

애로 요인	득점	가중치	최종순위
1. 자본금 조달 부족	13.28	22.32	1
2. 경영전문성의 부족	5.25	8.82	6
3. 조합원의 주인 역할 및 협동의 미흡	6.26	10.52	4
4.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11.23	18.87	2
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미흡 혹은 약화	2.33	3.92	8
6. 사회적 지원제도 및 정책의 미흡	10.30	17.31	3
7. 사회적 지원의 조직화 역량 미흡	4.93	8.29	7
8. 고민공유, 도움제공 등 경영네트워크의 부족	5.92	9.94	5
9. 기업의 홍보 부족			9

소결

- 본 연구는 유형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지표 항목과 각 지표의 우선 순위, 그리고 종합순위를 제시함.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본 연구진이 설문조사 시에 사회적경제조직대표들에 제시한 유형별 성과 측정지표 항목 설계는 상당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 시에 제시한 지표 항목 이외에 기타로 제시할 항목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애로요인으로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션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자본금 조달 부족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회적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형 사회적경제의 애로요인 순위와 유사함

소결

- 다만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요인 종합순위는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지원 미흡, 그리고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자활/직업훈련/상담서비스 등에 투하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지원의 미흡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음
-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션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조합원 또는 임직원 사이에 미션의 공유정도가 높을수록, 조합원의 주인역할이 높을수록, 풀타임직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원의 조직화역량이 높을수록 종합성과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V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및 향후 방향

1. 정부 지원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
2.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성과 분석
3.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제언

1. 정부 지원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

- ① 서울시 사회적 경제정책
- ② 서울시 사회적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
- ③ 다른 정부정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1-① 서울시 사회적 경제정책

- 연혁 :
 -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도적 여건 구축.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 중점분야 :
 - 1) 체계적인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
 -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 3)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
 - 4)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기반 구축
- 추진목표 :
 - 사회적 경제 비중 GRDP 대비 7%, 전체고용 대비 10%
 - (현재 GRDP 대비 0.1% 미만, 전체고용대비 0.5% 미만)

1-② 서울시 사회적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

-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홍보하며 지원하는 것
-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동할 수 있게 지원
- 서울시가 지원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기관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공무원이 절대로 앞장서지 마라',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 변화 1.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 대표가 서울시와 자주 접촉하고 사업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

변화 2.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1-③ 다른 정부정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 두 정책 모두 수요자인 기업들의 **성장단계와 일치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

차이점

- **민관협력의 제도화** (2013. 5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출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이 참여)
- **재정 지원의 규모가 다름** (예 : 재정규모가 큰 소상공인 정책은 주로 양적인 정책지원에 치중)
- (유사사례와의 비교) 과거 수출진흥확대회의 같은 협의기구(Deliberation Council)는 목표설정이 분명한 상태에서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는 협력과 지원구조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상당히 경쟁적이지만 서울시 사경정책에 경쟁적인 훈련 (Competitive Discipline)은 아직 없는 상태 (서울시 민관협의회는 민간과 자치단체의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이라는 틀에서 유사, but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고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 민관협력이 단순히 정보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강력한 동인이 필요.**
-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민간대표와 자치단체 대표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합의.**
-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택해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더 수준 높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참고>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 '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2조원 규모)
- 정책자금 융자 1.5조원, 보조사업 0.5조원 규모
-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1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
- 보조사업 : 소상공인사관학교, 임금근로자전환지원, 소공인 및 골목상권지원

2.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성과 분석

- ①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
- ② 지원에 소요된 자원 총량 대비 성과 효율성
- ③ 사회적 수요와 서울시 사경정책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의 미스매치 여부분석
- ④ 중앙정부 유사정책과의 비교
- ⑤ 종합정책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2-①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 (요약)

- 정부지원 필요 분야 : 투융자, 인건비 등 **재정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공간지원-교육 등 운영지원의 순. (사회서비스 제공형 : 공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함)
-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재정지원**-공간지원- 운영지원- 판로지원- 네트워크 지원 순
 - 모든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가장 높은 만족도
 - 교육 등 운영지원, 공간지원 및 네트워크지원에서는 **노동통합형**, 홍보 및 판로지원 및 투융자 등 재정지원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형**이 각각 가장 낮은 정책만족도
- Naura Borda Counting Rule을 활용하여 가중평균으로 구한 전체 설문 대상자 (무응답 제외)의 정책만족도: 40%-60% 정도
 - (미선별)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유형)별 인증 사회적 기업 기타형,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제공형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만족도.
 - 반면에 (미선별) **좋은 일자리 창출**, (조직유형별) **사업자 협동조합**, 인증 사회적 기업 **혼합형**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만족도.

<표 V-1>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 (1순위 응답)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 (1순위 응답)												
		사례 수	교육 등 운영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공간지원		투융자, 인건비 등 재정지원		네트워크 지원	
		N	N	%	N	%	N	%	N	%	N	%
[전 체]		204	16	7.8	58	28.4	27	13.2	97	47.5	6	2.9
[조직의 주요 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100	9	9.0	27	27.0	12	12.0	48	48.0	4	4.0
	노동 통합형	36	1	2.8	14	38.9	4	11.1	17	47.2	0	.0
	사회서비스 제공형	30	4	13.3	4	13.3	7	23.3	15	50.0	0	.0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38	2	5.3	13	34.2	4	10.5	17	44.7	2	5.3

<표 V-2>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교육 등 운영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공간지원		투융자, 인건비 등 재정지원		네트워크 지원	
		사례 수	평균 (%)	사례 수	평균 (%)	사례 수	평균 (%)	사례 수	평균 (%)	사례 수	평균 (%)
[전 체]		103	51.5	80	43.7	54	54.9	87	59.4	71	42.6
조직의 주요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57	50.6	45	40.1	29	49.0	37	52.7	42	38.0
	노동통합형	16	45.3	14	44.3	7	45.7	19	63.4	13	33.8
	사회서비스 제공형	16	58.4	11	55.9	7	71.4	13	66.9	9	56.1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14	54.3	10	45.5	11	65.9	18	63.3	7	69.3

<표 V-3> 조직유형, 미션 별 종합 정책만족도

		사례수		만족도지표의 평균
		N	%	
[전 체]		156	100.0	0.555214814
[조직의 주요미션]	1. 좋은 일자리 창출	78	50.0	0.503013039
	2. 노동통합형	24	15.4	0.579920987
	3. 사회서비스 제공형	26	16.7	0.640494911
	4.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28	17.9	0.600268665
[조직유형]	1. 인증 사회적기업(일자리 제공형)	27	17.3	0.617318938
	2. 인증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5	3.2	0.596590164
	3. 인증 사회적기업(혼합형)	7	4.5	0.490754579
	5. 인증 사회적기업(기타형)	11	7.1	0.668095026
	6. 소비자협동조합	6	3.8	0.531070292
	7. 직원협동조합	18	11.5	0.600567229
	8. 사업자협동조합	29	18.6	0.441276501
	9.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7	17.3	0.566146607
	10. 사회적 협동조합	12	7.7	0.55340446
	11. 마을기업	14	9.0	0.532725659

2-③ 사회적 수요와 서울시 사경정책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의 미스매치 여부 (요약)

1)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경제지원 분야 (1순위) :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유지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 도모** (60%이상).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취약계층 자활 및 일자리 제공-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순 (10% 내외의 낮은 선택율)

2) 서울시의 실제정책우선순위 (1순위) : 정책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 (그 비중은 상당히 차이). **일자리 창출/조합원 소득향상**과 관련한 분야는 필요성보다 **실제지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비해 **실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③ 사회적 수요와 서울시 사경정책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의 미스매치 여부 (요약)

3) 필요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직은 전체 설문대상자의 **1/3 수준**에 불과함

4) 미션 별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의 **순위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순위상관계수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 음의 숫자를 보임. 즉 이들 분야에서는 필요분야와 실제지원분야의 **미스매치**가 (적어도 인식상으로는) 매우 큰 것으로 보임.

<표 V-4>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회적 경제 지원분야 (1순위 응답)

		사례수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유지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 도모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아동,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N	N	%	N	%	N	%	N
[전 체]		204	128	62.7	28	13.7	17	8.3	31	15.2
[조직의 주요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100	83	83.0	7	7.0	1	1.0	9	9.0
	노동통합형	36	16	44.4	16	44.4	2	5.6	2	5.6
	사회서비스 제공형	30	12	40.0	2	6.7	12	40.0	4	13.3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38	17	44.7	3	7.9	2	5.3	16	42.1

<표 V-5> 설문대상자들이 판단하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실제지원 우선순위 (1순위)

	사례 수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유지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 도모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아동,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모름/무응답	
		N	%	N	%	N	%	N	%	N	%
[전 체]	204	85	41.7	29	14.2	25	12.3	62	30.4	3	1.5
[조직의 주요미션]	좋은 일자리 창출	100	50.0	12	12.0	10	10.0	25	25.0	3	3.0
	노동통합형	36	36.1	5	13.9	5	13.9	13	36.1	0	.0
	사회서비스 제공형	30	33.3	4	13.3	7	23.3	9	30.0	0	.0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38	31.6	8	21.1	3	7.9	15	39.5	0	.0

<표 V-6> 설문대상자의 인식에 기초한 지원 필요분야와 실제 지원분야 간의 순위상관계수

		사례수		순위상관계수 평균
		N	%	
[전 체]		196	100.0	0.298979592
[조직의 주요미션]	1. 좋은 일자리 창출	93	47.4	0.353846154
	2. 노동통합형	36	18.4	0.333333333
	3. 사회서비스 제공형	30	15.3	0.310344828
	4.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	37	18.9	0.081081081

2-④ 중앙정부 유사정책과의 비교

- **응답자의 2/3 정도** : 서울시 사경정책이 중앙정부의 유사한 정책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민간요구를 더 잘 수용하고 있으며 홍보가 잘 된 편이고 집행조직이 능동적이라고 답변. **포괄성이나 체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다소 낮아져 **50% 정도**로 나타남.
- **중간조직**에서의 평가도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평가가 좋으며 특히 **민간요구를 더 잘 수용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중간조직에 비해 필드 조직에서 포괄성과 체계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임.

<표 V-7> 중앙정부 정책과 서울시 사경정책의 비교

중앙정부정책과의 비교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N	N	%	N	%	N	%
비용대비 더 효율적	204 (32)	132(22)	65 (69)	50(9)	25(28)	22 (1)	10.8
민간요구 더 잘 수용	204 (32)	134(29)	66 (91)	49(3)	24(9)	21(0)	10.3
홍보가 더 잘 되어 있음	204 (32)	134(22)	66 (69)	50(10)	25(31)	20(0)	9.8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	204 (32)	110(22)	54 (69)	71(10)	35(31)	23(0)	11.3
집행조직이 더 능동적	204 (32)	135(21)	66 (66)	49(10)	24(31)	20(1)	9.8

○ : 서울시 중간조직

2-⑤ 종합정책만족도 설명요인 분석

- 종합정책만족도 설명요인 : 전체표본
 - 매출액중 공공시장비중이 높을수록, 조직이 오래될수록, 지출총액대비
지원비중이 클수록 만족도 증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부호는 일관적)
 - 지원비용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수록, 민간과 소통이 잘 된다고 느낄수록
만족도 증가 (통계적으로도 유의)

<표 V-8> (모형 별)종합 정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설립연도	-.0077378	-1.23	-.0086759	-1.37	-.0093316	-1.59	-.0073835	-1.20	-.0077743	-1.24
풀타임 근무 직원 수	.0001173	.011	.0002973	0.27	-.0005585	-0.56	-.0001872	-0.18	-.0000675	-0.06
공공조달시장 매출액 / 총 매출액	.0011987	0.43	.0018634	0.66	.0003276	0.13	.0001215	0.04	.0013725	0.49
지출총액 대비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0000957	1.06	.0000897	0.99	.000055	0.65	.0001151	1.30	.0001003	1.11
당기순이익	-1.58e-09	-0.03	-7.78e-09	-0.16	2.37e-08	0.52	2.81e-11	0.00	-5.35e-09	-0.11
정책에 대한 정보 더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			-.0658695	-1.20						
지원비용 대비 효과 더미 (효과 좋으면 1)					.1926708	*5.06				
정책의 현장소통 더미 (소통 잘하면 1)							.112031	*2.69		
사회적 경제조직 역할정도 더미 (역할 잘하면 1)									.0575752	1.41
상수	16.11043	1.27	18.00853	1.41	19.24757	1.64	15.36324	1.24	16.16473	1.28
Adj R-squared	= -0.0099		= -0.0068		= 0.1322		= 0.0305		= -0.0032	

<표 V-9> (미션 별)종합 정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전체 표본(n=156)		미션1 표본(n=78)		미션2 표본(n=24)		미션3 표본(n=26)		미션4 표본(n=28)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설립연도	-.0093316	-1.59	-.0112405	-0.88	.0044927	0.34	.0082789	0.87	-.0092987	-0.84
플랫폼 근무 직원 수	-.0005585	-0.56	-.000105	-0.04	-.0007388	-0.81	.0077343	1.04	-.0110172	-0.84
공공조달시장 매출액 / 총 매출액	.0003276	0.13	.0011577	0.39	.2429394	*2.12	.0270586	0.16	.0595493	0.37
지출총액 대비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000055	0.65	.000035	0.25	.0004775	*2.50	-.0000458	-0.28	.0001222	0.47
당기순이익	2.37e-08	0.52	5.86e-08	0.86	-1.04e-07	-1.17	-1.25e-07	-1.17	1.86e-07	*1.61
지원비용 대비 효과 더미	.1926708	*5.06	.1746011	*2.86	.3043315	*3.96	.1327854	1.31	.1436994	1.44
상수	19.24757	1.64	23.04372	0.90	-8.619519	-0.32	-16.07337	-0.65	19.2311	0.65
Adj R-squared	= 0.1322 (N=156)		= 0.0751 (N=78)		= 0.4716 (N=24)		= -0.0041 (N=26)		= 0.0909 (N=28)	

[전 체]		156
[조직의 주요미션]	1. 좋은 일자리 창출	78
	2. 노동 통합형	24
	3. 사회서비스 제공형	26
	4.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28

3.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제언

• 기존정책의 성과

유사한 정부정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특히 민간부문과의 소통에 좋은 평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56%, 중립 32%)

• 기존정책의 한계

- 지원필요분야와 실제지원분야 사이의 주관적 인식상 **미스매치**가 큰 상태임

-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미션을 지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정책제언

1. 투융자, 인건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정지원**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2.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높은 만족도는 특기할 만함. 이들에게 **공간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3. **교육 등 운영지원, 공간지원 및 네트워크지원**에서는 **노동통합형, 홍보 및 판로지원 및 투융자 등 재정지원**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형**이 각각 가장 낮은 정책만족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임.

정책제언

4. 전반적으로 다른 정부정책보다 서울시 사경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포괄성과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
5. 필드조직보다 중간조직의 평가가 더 후한 편이며 특히 민간과의 소통에 대해 필드조직보다 중간조직이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이는 중간조직에 비해 필드조직이 서울시의 소통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소통경로를 다양화**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측정과 정책 평가 연구결과 공유회』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서울연구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림 출처: <http://tongblog.sdm.go.kr/853>

목차.

- I. 연구의 개요
- II. 성과 평가 및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III. 성과 평가 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 IV. 성과분석 결과
- V. 시사점



I 연구의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1.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서울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시작한지 6년 경과한 시점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재평가 필요
- 현재 시점에서 서울의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육성지원 정책 평가 및 지속가능성 검토에 필수적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검증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측정방법 필요

2 성과지수 도출 및 보완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과를 측정
-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측정
- 성과 지수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본틀 마련

성과지수
활용

- 1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지원 대비 성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 제시
- 2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유형화를 통한 그룹별 성과와 지속가능성 측정결과 분석
- 3 향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2.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 연구기간: 2015년 5월 1일 ~ 2016년 6월 30일(14개월)

2 내용 및 방법

-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분석**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와 **지속가능성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
- 서울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및 성과 측정 자료 수집 - **설문조사** 실시
- 연구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3 연구진

- 연구책임: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유인혜 연구원(정현철 연구원)

5

II 성과 평가 및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관련 연구
2. 평가지표 관련 연구



1.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관련 연구

	확선편의 성과분석	한국식 SROI	CBA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 개별 사회적기업의 시계열적인 성과 분석으로 성과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간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가능함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별 편익과 비용의 범주 설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 이종산업간 이해관계자별 편익과 비용의 범주가 서로 달라 상호비교분석이 불가능함 동종산업간에도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표가 적용되어 상호비교분석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적이 없음 합인을 결정의 어려움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단일화된 기준이나 tool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업종별 등 다양한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그룹별 성과를 측정 및 비교분석 할 수 있는 tool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비율법을 통해 사회적 성과의 측정이 가능 미래에 발생할 편익에 대하여 합인을 적용을 통한 PV화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필요

2. 평가지표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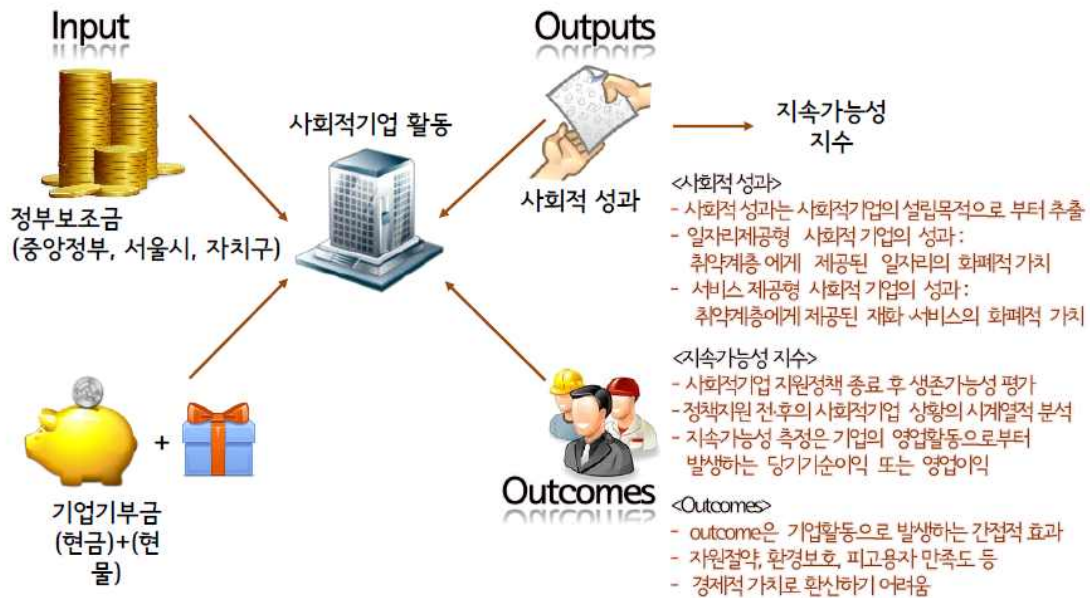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2014)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 경제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지표를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지표, 권고지표, 자율지표 등 풍부한 평가지표군을 소개 지표의 소개로 정책과제 수행에 있어 로드맵으로 활용 가능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수준에서의 분석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 (원자료 확보 불가능) 정책대안에서 전국 단위의 장기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지역단위로 적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종류가 너무 방대 연구의 특성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 실제 적용에 있어서 개별기업에게 설문을 진행하기에 어려움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함께 측정하여 정책 지표로 활용 서울의 사회적기업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평가에 적절한 지표들을 추출 후 연구에 반영 권고지표, 자율지표도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평가를 마련에 활용 예정

II 성과 평가 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1. 연구의 개념도
2. 사회적성과 지수
3. 지속가능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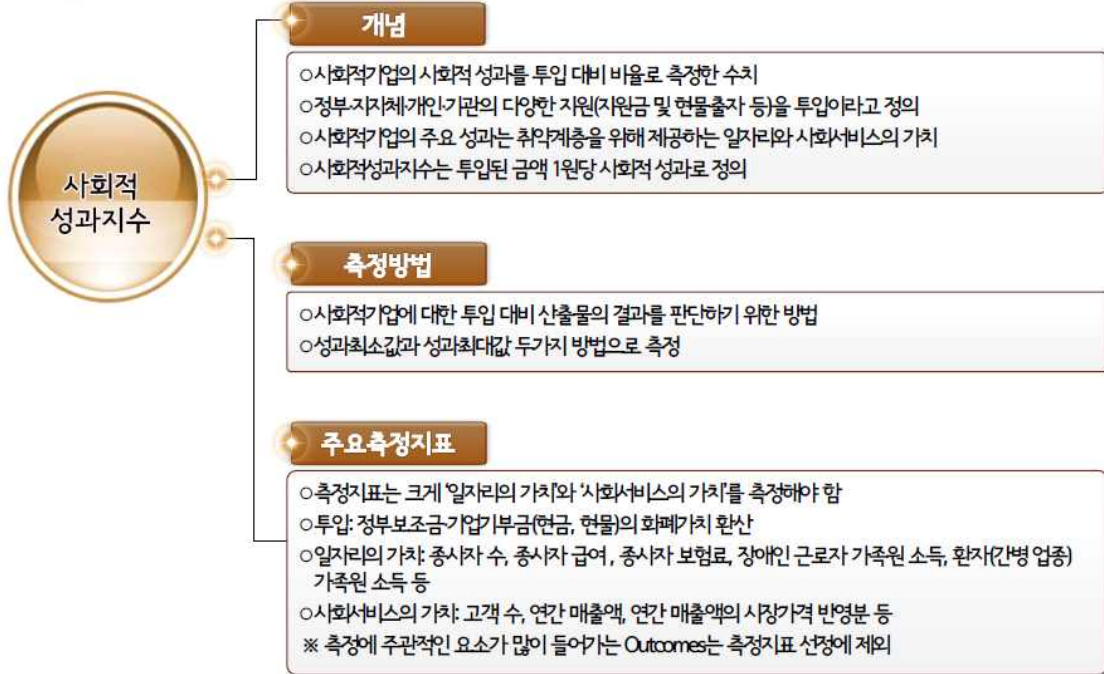


1. 연구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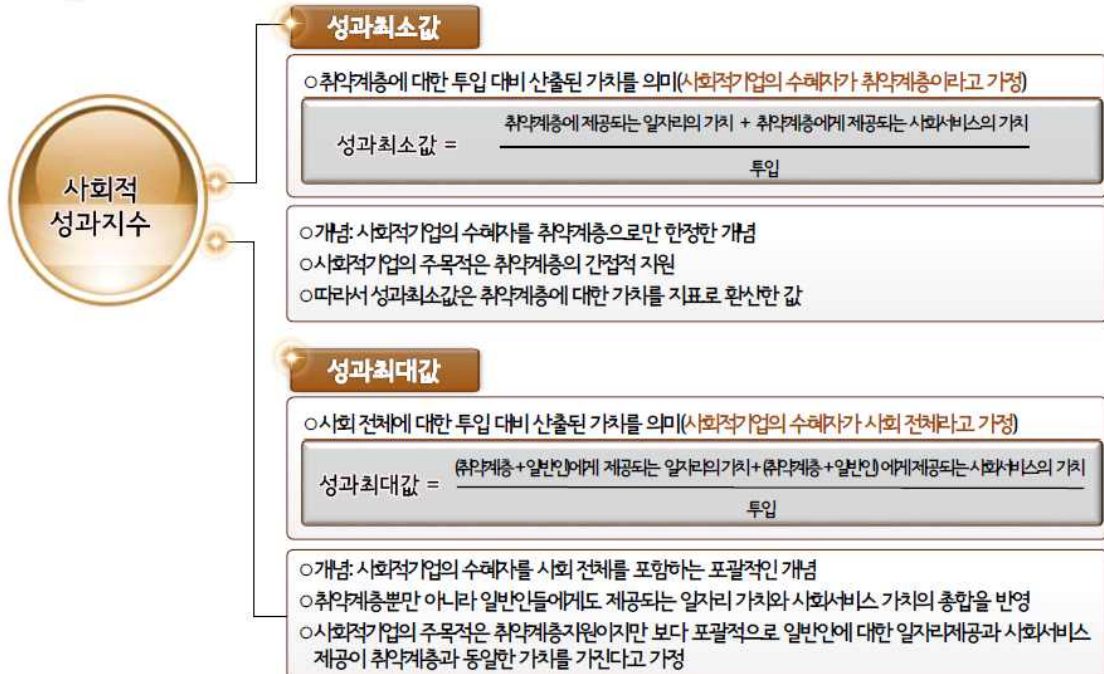
사회적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

2. 사회적성과 지수



11

2. 사회적성과 지수



12

2. 사회적성과 지수



수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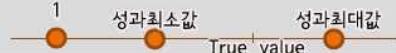
성과최소값: 협의의 사회적 성과 값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고려한 개념

성과최소값 > 1

- 투입된 자원금 · 기부금 <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 가치 및 사회서비스의 가치
-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함)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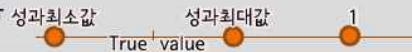
성과최대값: 광의의 사회적 성과 값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서비스 가치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의 합

성과최대값 < 1

- 투입된 자원금 · 기부금 > 일반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 가치 및 사회서비스의 가치
-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함)가 작다는 것을 의미

∴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가치가 없음



13

2. 사회적성과 지수



4대보험 회사기여분 반영

- 기존 연구지표에서 4대보험의 회사기여분은 빠져있는 상황
- 4대보험의 회사기여분은 고용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 가치 제고
- 사회적성과에 4대보험 회사기여분을 반영
- 4대보험 회사기여분이 많을수록 사회적성과가 높아짐

추가지표 1	취약계층	종업원 전체
4대보험 회사기여분	성과최소값에 반영	성과최대값에 반영

현실가격 반영

-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저렴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곳 존재
- 위의 경우, 사회적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가능성 존재
- 특히 간병,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사회적 성과가 저평가될 개연성이 높아서 이를 보완할 필요

서비스명	귀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상적인 시장가격 대비 ()% 할인
()	할인율은 해당업체 종사자가 직접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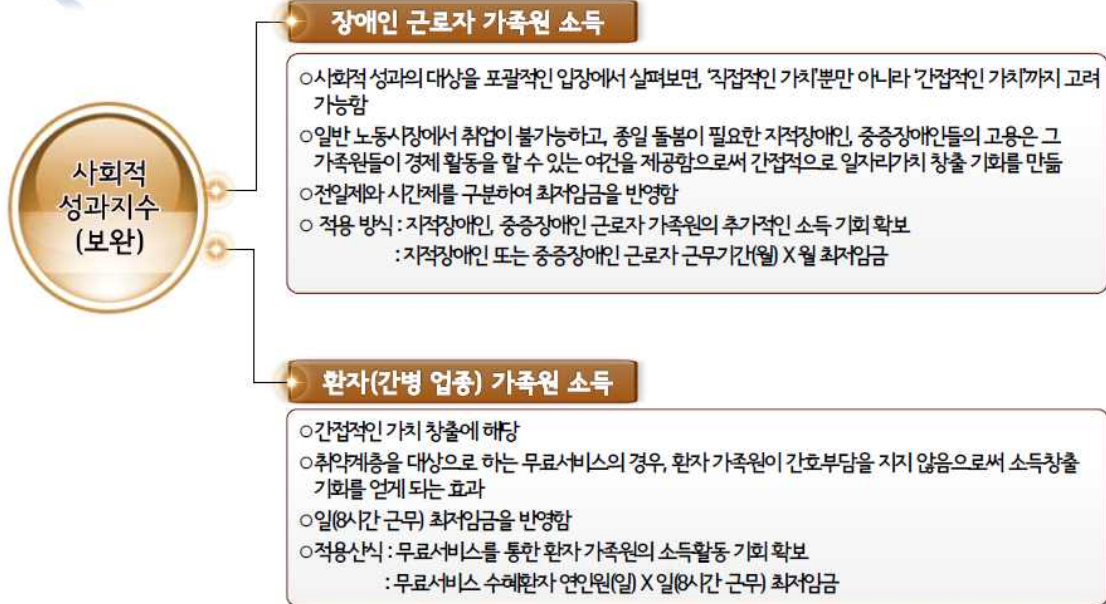
※ 측정방법

1. 해당 업체 종사자 대상 설문
2. 전문가 대상 설문
3. 시장 가격 실태 조사

여기서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해 1번을 우선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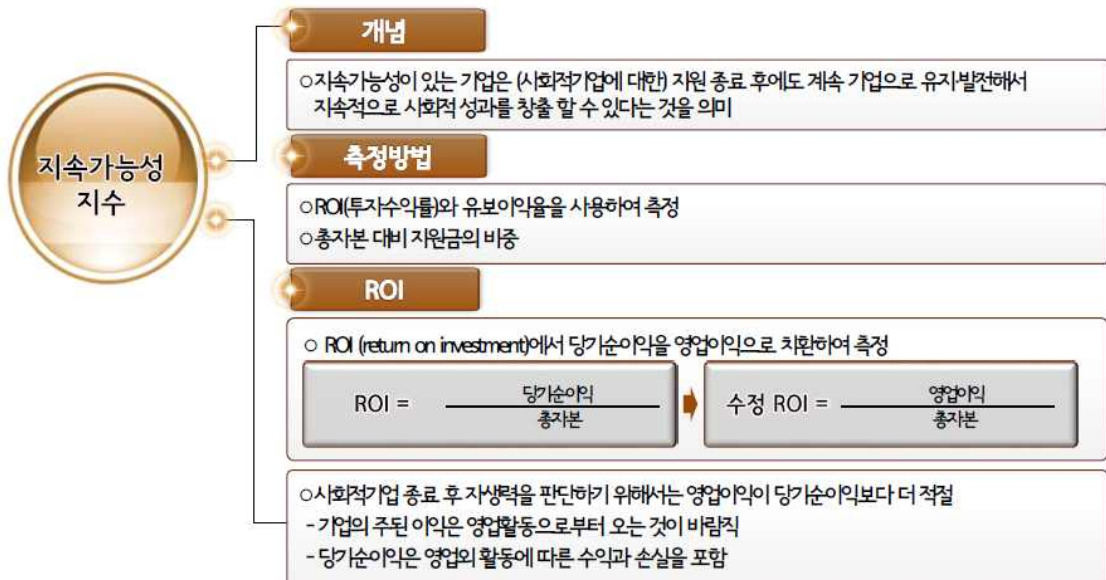
14

2. 사회적성과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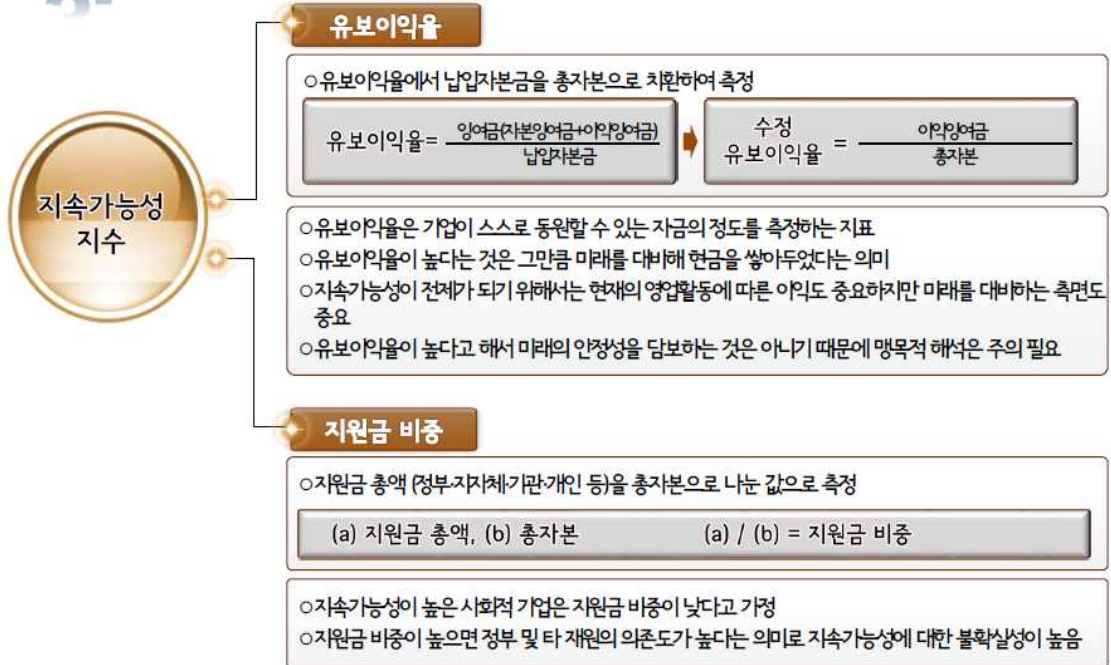
15

3. 지속가능성 지수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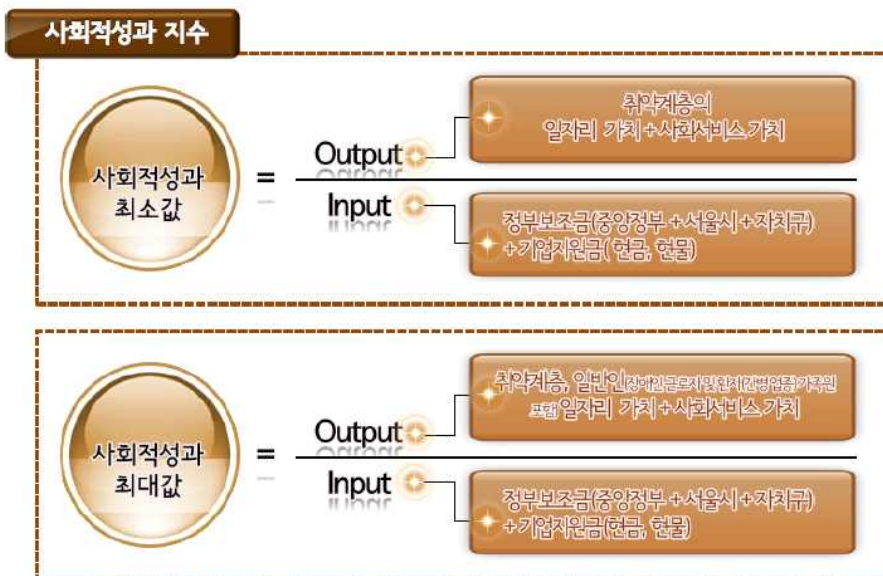
3. 지속가능성 지수



17

4. 지수 측정방법

● Index 는 사회적 성과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18

4. 지수 측정방법

- Index 는 사회적 성과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19

IV 성과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2. 고용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3. 사회적 성과 최소값
4. 사회적 성과 최대값
5. 사회적 성과 최소값 최대값 관계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1. 분석 개요

📌 조사 규모 총 101표본 (총 123부 회수, 무응답 등이 많은 부실 표본을 제외한 유효표본기준)

구 분		대상기업 수 (모집단)	표본 수	응답율(%)
전 체		439	101	23.0
유형별	인증사회적기업	260	63	24.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37	28	20.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2	10	23.8

📌 조사 기간 2016년 3월 16일 ~ 4월 27일

📌 조사 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공된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1차 전화 접촉
- 이후, Email 및 FAX, 업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21

1.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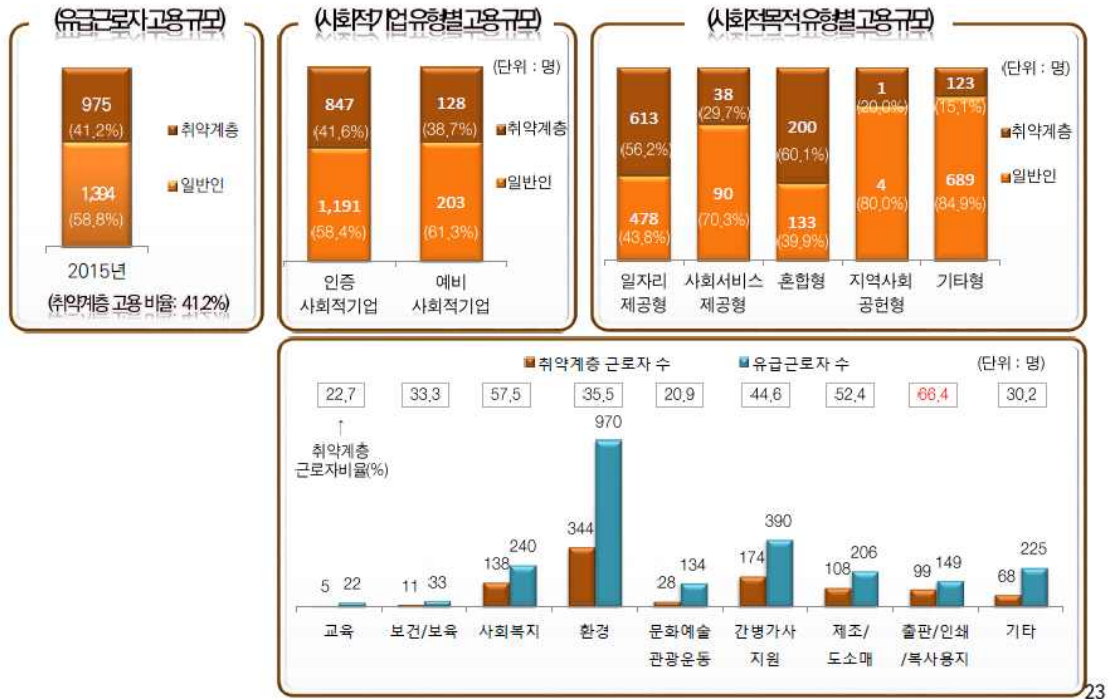
📌 표본 특성

- 사회적기업 유형 : 인증사회적기업(62.4%) VS 예비사회적기업(37.6%)으로 재분류
- 사회적 목적유형 : 일자리제공형 높은 비중 차지. 반면, 지역사회공헌형 참여율 저조
- 사회적기업 업종 : 비슷한 업종별로 그룹화하여 조정

구 분		표본 수	구성비(%)	비 고
전 체		101	100.0	
사회적기업 유형	인증사회적기업	63	62.4	'인증' VS '예비'로 재분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10	9.9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28	27.7	
	일자리제공형	54	53.5	
사회적 목적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11	10.9	대비!!
	혼합형	15	14.9	
	지역사회공헌형	1	1.0	
	기타형	20	19.8	
사회적기업 업종	교육	6	5.9	비슷한 업종별로 그룹화
	보건/보육	3	3.0	
	사회복지	6	5.9	
	환경	19	18.8	
	문화예술관광운동	17	16.8	
	간병가사지원	2	2.0	
	제조/도소매	20	19.8	
	출판인쇄복사용지	11	27.7	
	기타	17	27.7	
				지역개발컨설팅(5), 물류택배(2), 건설업(1), 기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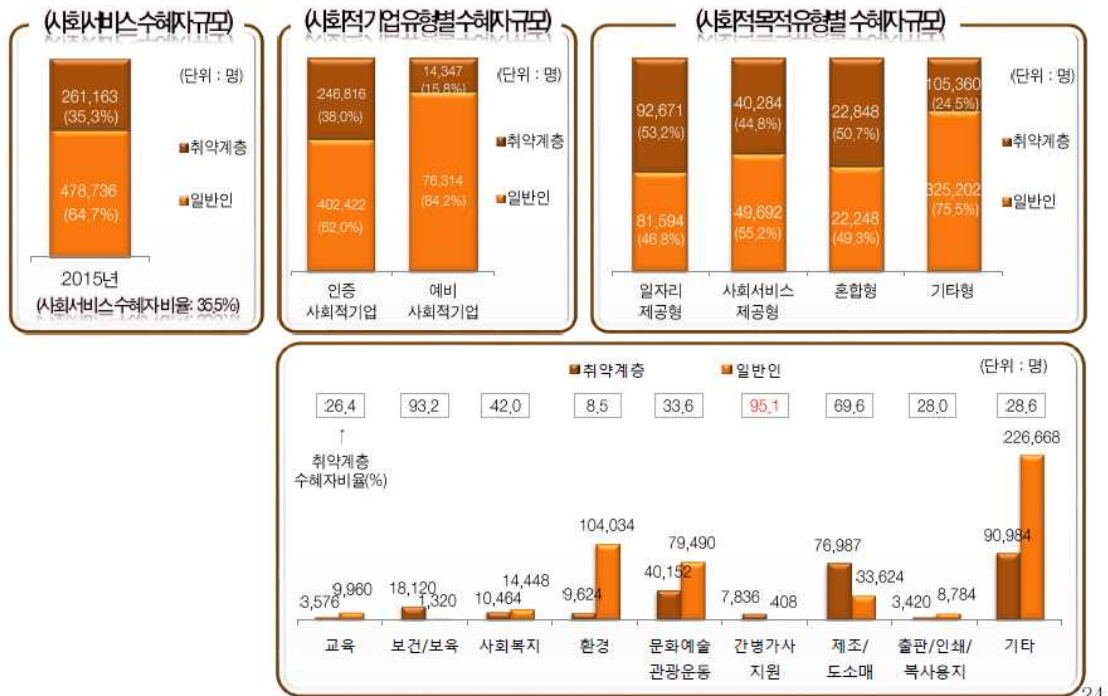
22

2. 고용 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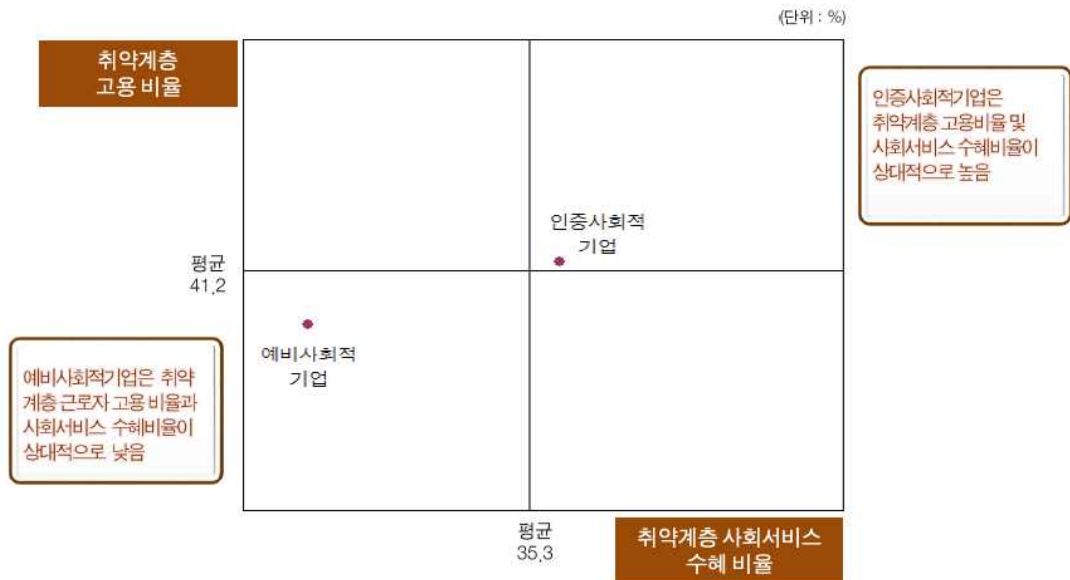
2. 고용 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24

2. 고용 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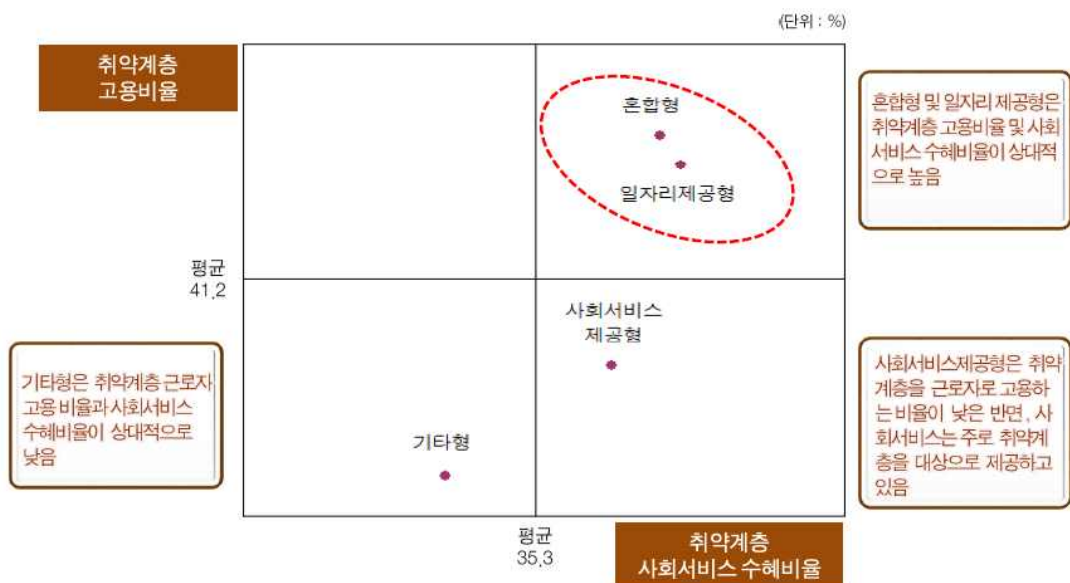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비율)



25

2. 고용 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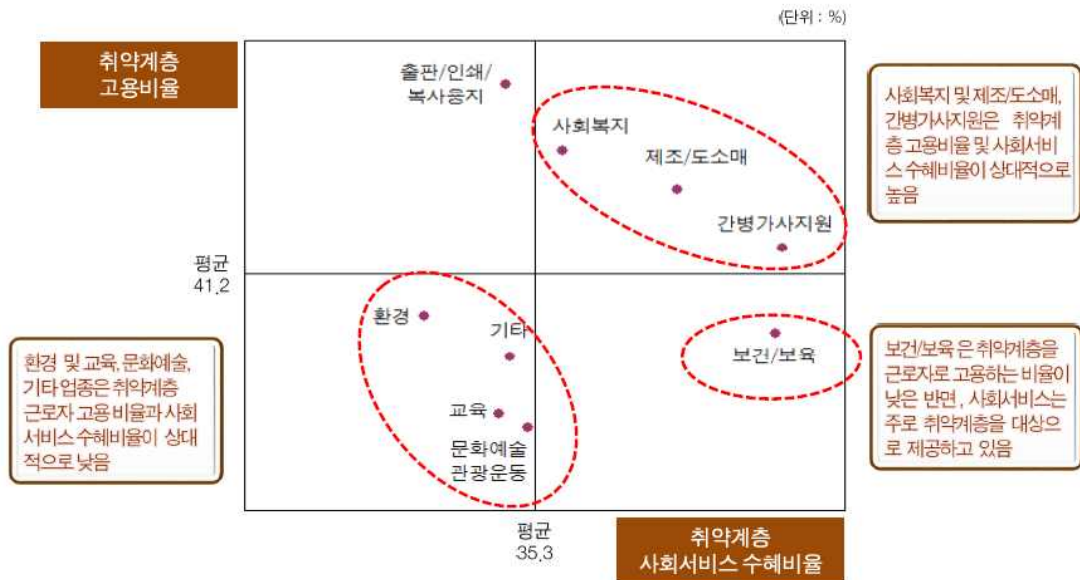
(사회적 목적유형별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비율)



26

2. 고용 규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업종별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비율)



27

3. 사회적 성과 최소값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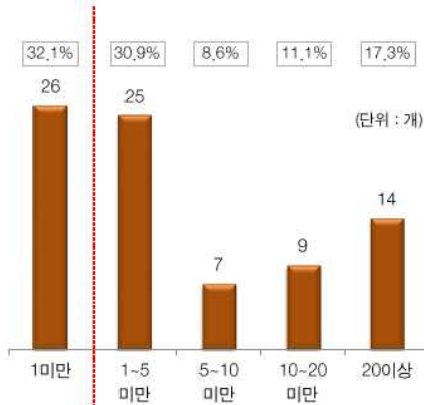
3. 사회적 성과 최소값

〈기본 측정방법〉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소값의 **평균은 106**으로 도출

→ 투입예산 1에 대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최소한 10.6배 이상**으로 평가

판단기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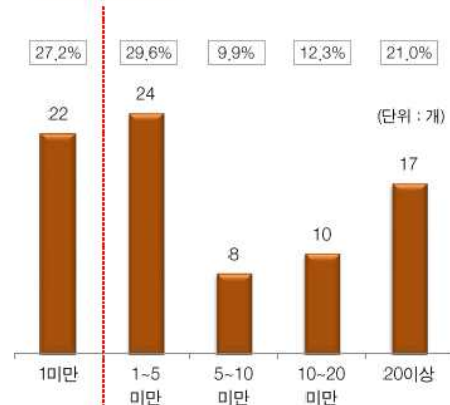


〈확장된 개념의 측정방법〉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소값의 **평균은 12.9**로 도출

→ 투입예산 1에 대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최소한 12.9배 이상**으로 평가

판단기준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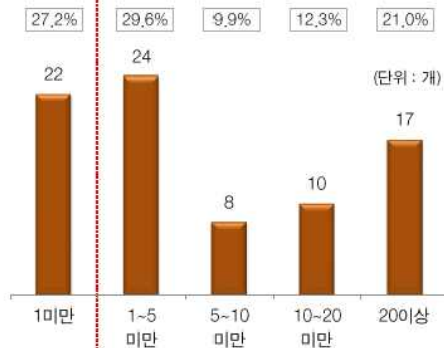
3. 사회적 성과 최소값

판단기준 1

사회적 성과지수 최소값이 1보다 작은 업체는 22개

사회적 성과지수 최소값이 1보다 큰 업체 59개

↓
조사기업의 72.8%는 최소값 기준으로도 투입금액보다 사회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판단기준 1

30

3. 사회적 성과 최소화

그룹별 사회적 성과 최소화

-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큰 사회적성과 가치 창출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은 투입된 예산보다 최소한 각각 18.9, 15.2, 13.9, 4.3배의 사회적성과 가치 창출. 지역사회공헌형은 0.2배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나 표본수를 고려해볼 때 일반화는 불가
- 간병가사, 환경, 제조/도소매, 사회복지, 보건/교육 업종 등에서 투입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사회적성과 가치를 창출
↓
반면 교육, 문화예술관광 등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회적성과 가치 창출



31

4. 사회적 성과 최대값

사회적 성과 최대값의 개념 및 해석

측정 방법 1) 기본 측정 방법 (보수적)

측정 방법 2) 확장된 개념의 측정 방법 (개방적)

사회적 성과 최대값 < 1

= 투입된 자원금 · 기부금 > 일반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 가치 및 사회서비스의 가치
=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장 포괄적으로 측정된)가 적음을 의미
∴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가치가 없음



(①취약계층+②일반인에 제공되는 일지리의 가치 + ③취약계층+④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

투입

- ① = 취약계층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② =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③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 ④ =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①취약계층+②일반인에 제공되는 일지리의 가치 + ③취약계층+④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

투입

- ① = 취약계층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4대보험 회사 부담금 + 상해보험료)
- ② =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4대보험 회사 부담금 +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 17종 임금 총액 + 한시인정 가계원 임금 총액)
- ③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 ④ =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32

4. 사회적 성과 최대값(확장 개념 기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대값의 평균은 29.5로 도출

→ 투입 예산 1에 대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최대 29.5배 이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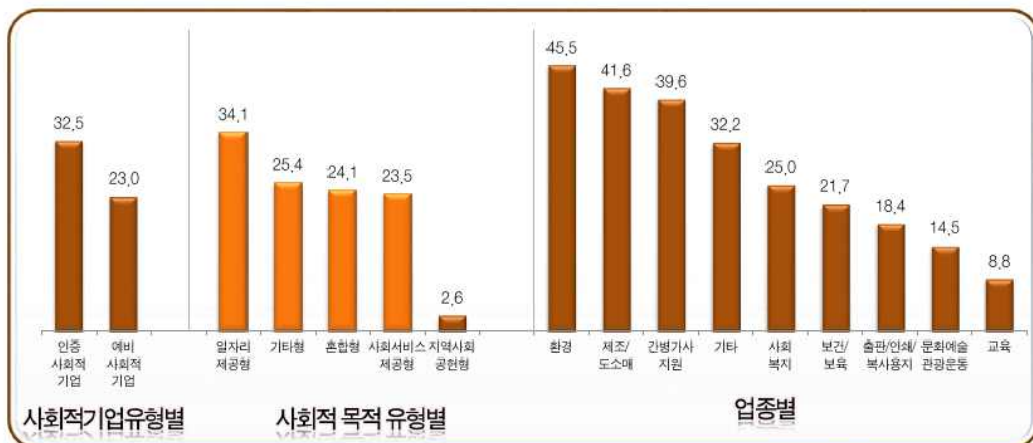


33

4. 사회적 성과 최대값

그룹별 사회적 성과 최대값

- 인증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큰 사회적성과 가치 창출
- 일자리제공형, 기타형, 혼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은 투입 예산 대비 최대 각각 34.1, 25.4, 24.1, 23.5배의 큰 사회적 성과를 창출. 지역사회공헌형은 2.6배로 매우 저조하나 표본수가 작아 일반화는 불가
- 환경 및 제조/도소매, 간병가사지원 등의 업종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성과 가치를 창출
- ↓
- 반면, 교육 및 문화예술관광, 출판/인쇄/복사용지 등의 업종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사회적성과 가치가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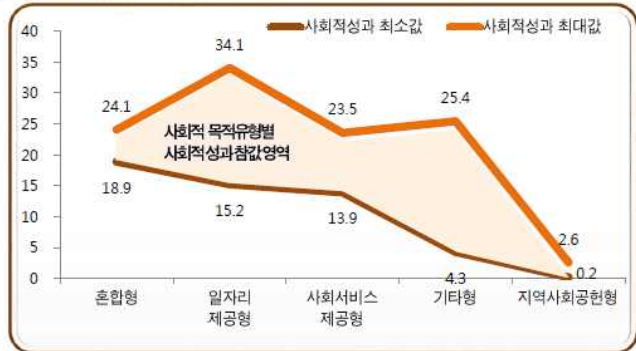
34

5. 사회적 성과 최소 · 최대값의 관계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성과를 온전히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측정 가능한 가치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도출

●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사회적 성과의 참값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존재

●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이 높으면 최대값도 높은 경향을 보여 비교적 비례 관계를 나타냄



● 최소 최대값의 편차가 클 경우 사회적 성과값의 상하한선이 커서 참값을 파악하기 어려움

→ 사회적 목적유형별에 있어서 기타형과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업종별에 있어서는 제조/도소매, 환경, 기타 등의 업종에서 사회적 성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클 경우, 최소값을 기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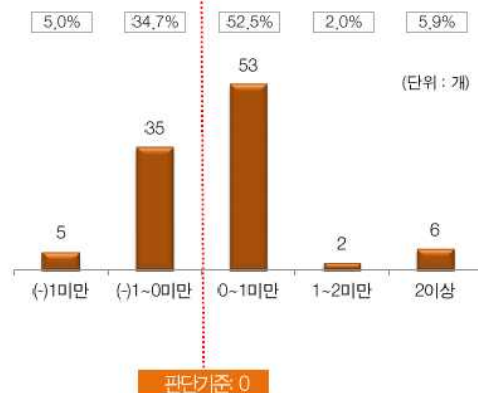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통상적으로 ROI(return on investment)는 당기 순이익을 사용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ROI 측정시 **영업이익**을 사용

∴ 정부보조금 등의 영업외이익을 배제하여 지원금 없이 기업이 존속가능한지를 판단

판단기준 0
ROI 값이 0 보다 작은 업체: 40개 (39.7%)
ROI 값이 0 이상 큰 업체: 61개 (60.3%)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



- 영업이익을 활용한 ROI 값의 전체 평균은 0.3으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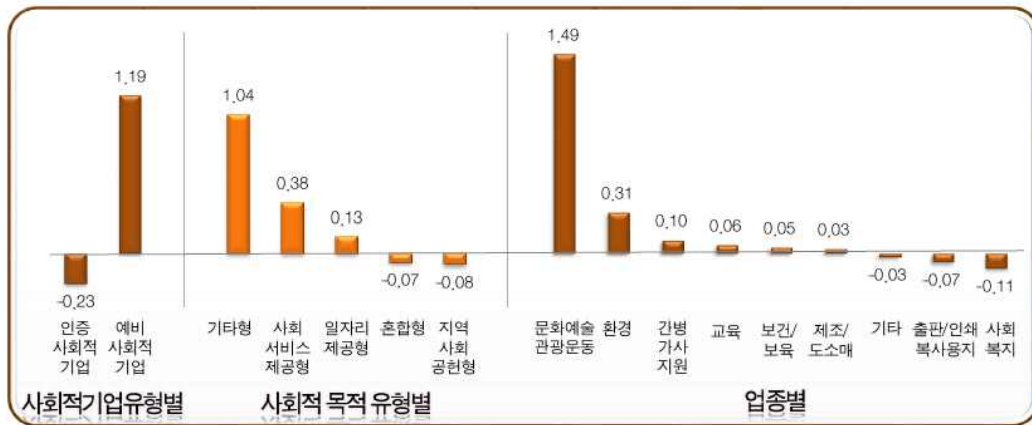
- ROI 값이 0 보다 작은 업체가 전체기업의 약 40%에 해당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그룹별 ROI (영업이익 활용)

-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기준 ROI 값이 음수로 나타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음
- 기타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ROI 값이 각각 1.04와 0.38로 상대적으로 커서 경제적 자생력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등은 지속가능성지수가 음수로 나타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관광운동업종의 경우 지속가능성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회복지, 출판/인쇄/복사용지 등의 업종은 지속가능성지수가 음수로 나타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
※ 사회복지와 같은 업종은 주로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ROI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됨 (취약계층 대상 할인율 평균 63.6%)



37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당기순이익 기준의 ROI(return on investment):
영업이익을 활용한 ROI 지수를 사용할 때보다 '평균값'과 '0 이상인 기업의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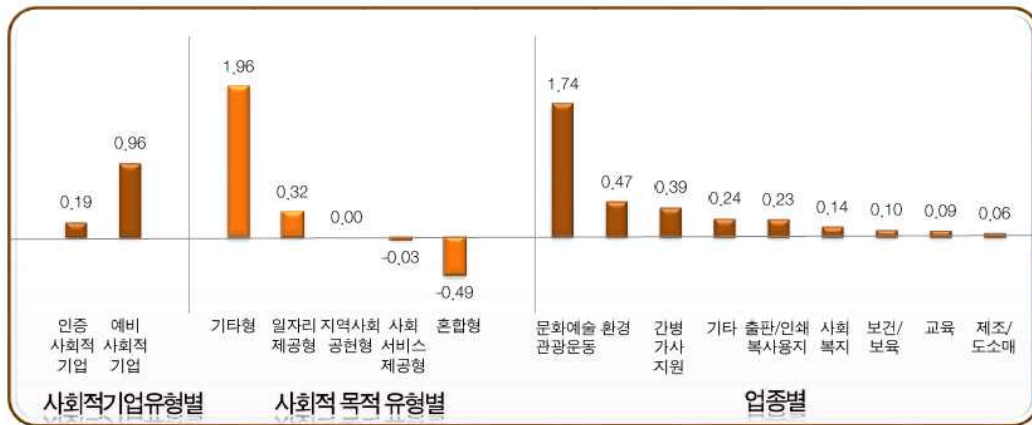


38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그룹별 ROI (당기순이익 활용)

- 인증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 기준 ROI 값이 0.19로 예비사회적기업 0.96보다 다소 작은 값을 보임
- 기타형과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ROI 값이 각각 1.96과 0.32로 상대적으로 커서 경제적 자생력이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등은 지속가능성지수가 음수로 나타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관광운동업종의 경우 지속가능성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제조/도소매, 교육, 보건/보육, 사회복지 등의 업종은 지속가능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39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유보이익율

- 이익유보(적립)이익율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순이익의 누적액으로 유보이익율이 클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함을 의미함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유보이익율이 32.5%로 가장 큰 반면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유보이익율이 -3.4%로 이익잉여금이 음수를 보이고 있어서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간병기사지원업종의 경우 유보이익율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교육 업종은 유보이익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40

6.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지원금 비중

- 인증사회적기업의 총자산 대비 지원금 비중은 184.7%로 큰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34.8%에 불과함
- 일자리제공형의 지원금 비중은 192.0%로 가장 높으며, 기타형 83.1%, 사회서비스제공형 41.1%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보임
- 환경 및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등 업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지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제조/도소매 및 간병가사지원, 교육 등 업종은 총자산 대비 지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41

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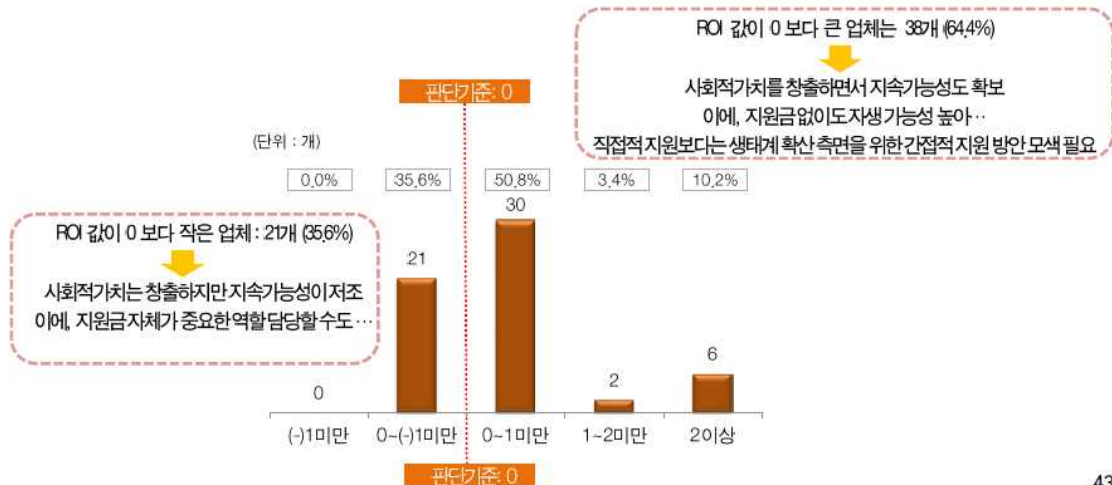


시사점.

- '사회적 성과 최소값 > 1' 기업 : 총 59개
 - 조사기업의 약73% 이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투입 금액보다 사회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조사기업 전체의 사회적 성과 최소값 평균은 129로 투입예산1에 대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최소한 129배 이상으로 평가

∴ 사회적기업의 성과 양호 및 지원 정책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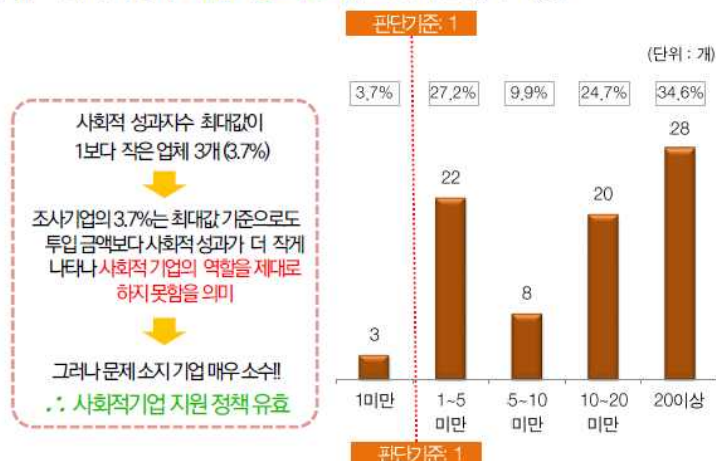
- 사회적 성과가 크게 나타난 73% 기업 중 35%가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것은 문제



43

시사점.

-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미만인 3개 기업은 최대값 기준으로 투입금액보다 사회적 성과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 성과지표 검토를 통한 1차 검증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재검증을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단, 전체 기업 81개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은 3개(3.7%)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지원 정책은 유효하다고 평가 가능



44

감사합니다.